

제7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교양으로서의 사회과학 : 핵심성과 보편성

일시: 2023년 2월 2일(목) 13:30~16:30

장소: 비대면 온라인(Zoom)

<https://yonsei.zoom.us/j/95194879742>

주최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LIBER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후원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제7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교양으로서의 사회과학: 핵심성과 보편성

2023. 2. 2.(목) 13:30~16:30
온라인 비대면 (with Zoom)

주최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LIBER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후원



한국연구재단

프 로 그 램

일시 ॥ 2023. 2. 2.(목) 13:30~16:30

장소 ॥ 온라인 비대면 (with Zoom)

주제 ॥ 교양으로서의 사회과학: 핵심성과 보편성

주최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사회: 최강식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13:30~13:40	[개회사/환영사] 장수철 교수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
13:40~14:00	[발표 I] 이인성 교수 /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 정치학 교양교육의 목표와 과제
14:00~14:20	[발표 II] 정경미 교수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교양과목으로서 심리학의 포지셔닝: 과학적 마인드와 인간의 이해
14:20~14:30	휴 식
14:30~14:50	[발표 III] 박철성 교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교양과목으로서의 경제학,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14:50~15:10	[발표 IV] 한준 교수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교양으로서의 사회학
15:10~15:30	[발표 V] 김성희 박사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족학
15:30~15:40	휴 식
15:40~16:30	[종합토론] 좌장: 최강식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16:30	[폐회사] 장수철 교수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 대 의 글

2022학년도 2학기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교양으로서의 사회과학: 핵심성과 보편성) 개최를 환영합니다.

우리 교양교육연구소는 2017년 설립된 이래, 연세대학교는 물론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학술 활동을 기획,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심포지엄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사실 교양 교육 영역에서 사회과학은 관련 전공자가 적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연구소 구성원 중에도 관련 연구자는 매우 적습니다. 한국교양교육학회의 구성원들을 봐도 사회과학 전공자는 희귀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여러 구성원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컨설팅을 할 때 만나게 되는 교양교육 종사자 중에서도 사회과학 전공자는 손에 꼽습니다. 즉, 희귀성 면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기초 학문 분야를 망라하여 발표가 이루어지는 점 역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연구소로서는 큰 성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발표 내용은 이후 교양교육 내용을 집대성하여 많은 학자분께 제공해드릴 총서를 구성하는 데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 또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연구소의 이러한 시도가 우리 대학,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양교육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확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2일

장 수 철, Ph.D.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

차 례

[프로그램]

[초대의 글]

[발표 I]

- 정치학 교양교육의 목표와 과제 1
| 이인성 교수 |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발표 II]

- 교양과목으로서 심리학의 포지셔닝: 과학적 마인드와 인간의 이해 13
| 정경미 교수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발표 III]

- 교양과목으로서의 경제학,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31
| 박철성 교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발표 IV]

- 교양으로서의 사회학 51
| 한준 교수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발표 V]

-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족학 87
| 김성희 박사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발표 I]

정치학 교양교육의 목표와 과제

| 이인성 교수 |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목차

I. 교양 정치학의 의의와 목표

1. 교양 정치학의 의의
2. 교양 정치학의 목표와 요건

II. 교양 정치학의 학습 주제(1)- 핵심 개념과 요소

1. 정치의 개념
2. 정치의 수단- 2.1 권력제도, 2.2 국가와 정부
3. 정치의 배경적 요인- 3.1 정치문화, 3.2 정치이데올로기

III. 교양 정치학의 학습 주제(2)- 과정과 제도

1. 정치과정의 분석틀
2. 이익표출 단계와 이익집단, 사회여론
3. 이익결집 단계와 정당조직
4. 정책결정 단계와 정부기관
5. 정책집행 단계와 관료조직
6. 민주정치제도의 특징과 가능조건

IV. 교양 정치학의 추가 과제

1. 학습 주제의 확장
2. 교육 방식의 확장
3. 교육 목표의 재확인과 유의 사항

I. 교양 정치학의 의의와 목표

1. 교양 정치학의 의의

-교양교육의 보편성과 공동체성; 두 가지 팩트 체크

- 1) 보편성- 거의 모든 대학이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함
다만 대학 유형에 따라 교양학점의 비중과 구성에 차이
- 2) 공동체성- 교양교육은 학생 개인의 발전과 성취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믿음과 기대에 기반, 공동체 지성의 함양 노력
(교양교육체계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 목표)

-정치학의 교양교육 관련 특성

- 1) 공동체성- 정치학은 사회공동체의 집단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을 다룸, 공동체 집단과 구성원들의 삶을 분석함
- 2) 포괄성- 사회과학에 속하지만 철학, 역사 등의 인문학과 긴밀하게 연관
행정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인접 학문과도 밀접히 연결
교양교육에 필요한 통섭교육의 공간으로서 적합한 특성 소지

2. 교양 정치학의 목표와 요건

- 교양 정치학의 취지와 목표, “정치적 지식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전문적 교양인이자 시민의 양성”
- 3단계 목표: 1) 정치적 지식과 이해, 2) 공동체 지성과 윤리의식 함양, 3) 정치참여의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 배양
- 교양 정치학의 요건(3대 기본 + 2개 추가)
 - 1) 핵심성- 전공 정치학과 달리 핵심적 내용에 집중
 - 2) 보편성- 타 학문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내용에 집중
 - 3) 학술성- 대학 수업에 맞는 학문적 자세와 기준 유지
 - 4) 접근성- 학생들의 ‘반정치’ 정서 극복과 긍정적 인식
 - 5) 복합성- 지식 전수와 윤리 함양의 복합적 교육체계

참고자료(1)- 정치학개론서 학습주제

● (1인 외국인 저자, 2014, 824쪽)

01. 정치란 무엇인가?
02. 정치이념과 이데올로기
03. 정치와 국가
04. 민주주의와 정당성
05. 민족과 민주주의
06. 정치경제학과 사회구조
07. 정치사회와 정치체제
08. 정치문화와 대중매체
09. 대의제, 선거와 투표
10. 정당과 정당제도
11. 정당과 이익단체와 운동
12. 정부, 체제 그리고 정권
13. 행정부와 리더십
14. 의회
15. 헌법, 법률과 재판관
16. 공공정책과 관료제
17. 다차원적 정치
18. 안전: 국내와 국제
19. 세계질서와 지구 거버넌스
20. 정치의 위기인가?

● (1인 외국인 저자, 2019, 500쪽)

- 1장 정치: 무대의 설정
- 2장 근대 이데올로기와 정치철학
- 3장 근대 국가
- 4장 국가의 정책
- 5장 국가의 경제정책
- 6장 정책의 이면에 숨어있는 것: 공정성과 효율성에 관한 질문
- 7장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체제
- 8장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 9장 헌법과 정부의 설계
- 10장 선거
- 11장 정당: 정치의 요소들을 연결하고 이끌어주는 장치
- 12장 구조화된 갈등: 이익집단과 정치
- 13장 사회운동과 투쟁적 정치
- 14장 국가 정책결정제도: 의회제 정부
- 15장 국가 정책결정제도: 대통령제
- 16장 관료제와 공공부문
- 17장 법과 법원
- 18장 세계정치: 국가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 간의 정치

참고자료(2)- 정치학개론서 학습주제

● (18인 공저, 2018, 590쪽)

제1장 정치학의 총설
제2장 국가론
제3장 정치권력과 정치과정
제4장 정치체제와 정치과정
제5장 시민사회, 대중사회 및 대중민주주의
제6장 민족, 계급 및 대중사회화
제7장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제8장 정치체제의 분류
제9장 민주주의의 체제
제10장 전제주의 체제
제11장 의원연단제
제12장 의원연단제
제13장 선거제도와 선거제도
제14장 지방자치
제15장 지방자치
제16장 지방자치
제17장 지방자치
제18장 지방자치
제19장 세계정치
제20장 국제정치이론
제21장 국제정치체제와 질서

● (12인 공저, 2019, 387쪽)

1 민주주의
2 서양정치사상
3 한국정치사상 서설
4 국가론
5 정부형태, 의회
6 정당, 선거, 의회
7 관료제와 공공행정
8 정치변동: 민주화와 사회운동의 동학
9 권위주의론
10 법과 정치
11 법과 정치
12 국제관계

II. 교양 정치학의 학습 주제(1)

- 핵심 개념과 요소

1. 정치의 개념

- 초반에 개념 정립 필요; 다양한 개념의 소개보다 정치 본연의 사회적 기능에 입각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에 중점
- 정치는 “공동체 집단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 그 결과 강제력 갖춘 규칙의 제정과 집행을 통해 사회공동체 관리
- 기존 제 개념과 비교 (권력현상설,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등)
- 강조점과 기대 효과

2. 정치의 수단

2.1 권력제도

- 개념: “타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
- 그 특징, 비자발적 vs. 자발적 요인 검토, 유사 개념과 비교
- 사회내 권력질서 현실, 근현대 이후 권력의 진화 현상 검토
- 권력의 공동체 제도와 삶의 구성력 검토
- 권력의 부정적 vs. 긍정적 측면, 개인 vs. 공동체 관점 비교
- 강조점과 기대효과

2.2 국가와 정부

- 광의와 협의의 개념 구분, 현대 국가(state)의 다양한 모습과 역할 검토
- 국가 유형 구분(정복국가-발전국가-민주국가-복지국가 등)과 특징 검토
- 미래의 국가 전망: 세계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쟁국가’ 모델과 ‘디지털 거버넌스’ 등장 가능성 검토, 강조점과 기대효과

3. 정치의 배경적 요인

3.1 정치문화

- 개념적 특징과 중요성, 정치제도 vs. 정치문화의 합치성 문제 검토
- 정치문화 유형 검토 (향리형-신민형-참여형 문화 등)
- 정치문화의 유형론적 접근법 장단점
- 미래의 정치문화 전망 (네트워크 소통체제, 익명성 사회관계, 다중집단문화)

3.2 정치이데올로기

- 개념적 특징과 중요성 검토, 일반 정치사상과의 차이점
- 현시대의 4대 정치이데올로기 소개 (자유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 공동체주의)
- 정치이데올로기의 비교 (등장배경, 문제의식, 이상형 사회와 정치, 실현 방안)
- 응용과제: 이데올로기 간의 일치점과 대립점 파악, 융복합 조합 가능성 검토
- 정치이데올로기의 미래 전망, 이데올로기 현상의 본질 파악
- 강조점과 기대효과

Ⅲ. 교양 정치학의 학습 주제(2)

- 정치과정과 제도

1. 정치과정의 분석틀 설정

- 복잡 다단한 정치과정의 분석틀 필요성과 어려움
- 정치체계론의 유용성과 그 분석체계 (투입-이익표출-이익결집-정책결정-정책집행-산출-결과-피드백)
- 예) Easton 1953 순환론적 모델, Almond 1974 순환론적 접근
- “집단의사의 결정과 집행” 정치 개념에 적용 가능, 그 강조점과 기대효과

2-1. 이익표출 단계와 이익집단

- 개념: “특정 목적을 공유한 사람들이 설립한 사회결사체”
- 특징, 발달요인, 이익집단체계 유형(다원주의,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모델), 선진형 vs. 후진형 이익표출 행태 비교
- 관련 쟁점: 로비스트의 합법화 이슈
- 순기능(현장정보, 정치참여) vs. 역기능(분배왜곡, 정치부패) 비교
- 강조점과 기대효과

2-2. 이익표출 단계와 사회여론

- 개념: “특정 사안에 대한 사회대중의 의견”
- 그 특성, 형성단계 구분과 특징 검토
- 그 효과 결정요인 (지지의 범위, 강도, 현실성)
- 그 기능 (비판과 지지, 정치참여와 교육), 한계와 문제점
- 강조점과 기대효과

3. 이익결집 단계와 정당조직

- 개념: “정치적 신념의 공유자들이 그 실현을 위해 조직한 결사체”
- 그 특성, 변천과정, 정당체계 유형(일당-양당-온건/극단 다당체제)
- 선거제도와 관계 (선거구제도, 승자결정방식)
- 관련 쟁점: 투표율 저하와 강제투표제도 실시
- 그 기능 (이익결집, 정치충원, 정치교육, 정책견제)
- 강조점과 기대효과

4. 정책결정 단계와 정부기관

-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가 권위를 기반으로 공공정책을 수립
- 정책결정 과정의 Blackbox 성격, 영향요인 파악 필요성
- 영향요인 1) 정부형태와 권력체제 (의회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2) 정책결정 상황과 행태 (합리적 행위자, 점증주의, 관료조직 모델)
- 강조점과 기대효과

5. 정책집행 단계와 관료조직

- 관료조직: “국가 행정업무 담당 직업공무원 집단”
- 그 경쟁적 시각 (합리적 행정모델, 권력블록모델, 과잉공급모델)
- 그 특징과 원칙 (분업화, 표준화, 집권화: 신분보장, 실적선발제도)
- 그 영향력과 정치적 기능 (국가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정책집행)
- 관련 쟁점: 유능한 관료 vs. 민주적 관료의 요구
- 강조점과 기대효과

6. 민주정치제도의 특징과 조건

- 그 특성 검토 (다수성, 민중성, 평등성, 동료의식)
- 그 이념적 + 제도적 구성 요소 검토
- 이론적 쟁점: 옹호론(강한 평등 원칙, 본질적 평등론, 이익평등론, 자율성 주장 원칙) vs. 회의론(수호자주의, 소수지배론, 제도 한계)
- 독재권력과 정치의 지속적 출현의 이유와 사례 소개
- 민주정치 가치, 공백과 모호성 문제, 지속가능조건 검토
- 관련 쟁점: 세계화 시대의 민주정치? (세계화의 민주주의 증진 vs. 제한 효과, 일국 민주주의 방안 vs. 국제질서의 민주화 방안)
- 강조점과 기대효과

IV. 교양 정치학의 추가 과제

1. 학습 주제의 확장

- 정치학개론(입문)의 후속 정치학 교양교육 주제의 개발과 확대
- 예) 관심 주제들: 민주주의, 세계화, 한국정치, 북한정치, 동아시아정치, 환경정치, 사이버정치, 성 정치, 예술과 정치, 영화와 정치 등
- 예) 통섭분야 과목들: 정치경제, 정치사회, 정치심리 등

2. 교육 방식의 확장

- 전통적 연역적 방법(개념 설명과 이론 학습 위주)과 귀납적 방법(현실 경험과 사례 중심)의 병행 시도
- 교수자 중심의 강의 방식,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방식, 중간 형태의 토론 방식 혹은 협동학습 방식의 선별적 활용
- 학습 목표의 상향 조정: 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안 활동

3. 교육 목표의 재확인과 유의 사항

- 친시장 사회에서 대학의 이중 기능 (배후기지, 시정 원동력)
- 교양 정치학의 역할 (시장 몰입형 인재보다 시장 비판적 인재)
- 학생들의 정치학 수강 이유 검토 (평소 관심, 지식 부족 의견 다수)
수강생들의 평가 의견 검토 (지식, 관심, 효능감 증가 의견 다수)
- 유의 사항
 - 1) 전공 정치학과와의 차별성 유지
 - 2) 교양 정치학의 수강 기회 확대- cf) 미국 주립대학의 추세



감사합니다!!!

[발표 II]

교양과목으로서 심리학의 포지셔닝
: 과학적 마인드와 인간의 이해

| 정경미 교수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양과목으로써 심리학의 포지셔닝 : 과학적 마인드와 인간의 이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경미



WHAT 교보문고 웹사이트에서, 심리학을 검색해봅니다.

KYOBO 교보문고 HOT 당신 ♥ 좋아요 통합검색 | 심리학 검색 상세 검색 학습서검색

분야별 검색결과와 상품을 분야별로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인문(1,658)	* 자기계발(279)	* 정치/사회(139)
* 경제/경영(116)	* 종교(103)	* 취미/스포츠(99)
* 기술/공학(46)	* 가정/생활(45)	* 취업/수험서(41)
* 예술/대중문화(32)	* 과학(16)	* 시/에세이(14)
* 건강(10)	* 어린이(9)	* 역사/문화(7)
* 소설(6)	* 컴퓨터/IT(5)	* 만화(4)
* 어린이전집(2)	* 중/고등학교습(1)	* 대학교재(1)



심리학의 정의

심리학이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MIND

Science!

Behavior

심리학의 정의

MIND

심리학이 정의하는 '마음'

우리의 사적인 내적 경험

지각, 사고, 기억, 감정으로 구성되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

Behavior

심리학이 정의하는 '행동'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

인간과 동물의 관찰할 수 있는 행위

심리학의 정의

심리학은 과학
과학의 목적: 기술(Describe) 예측(Prediction) 통제(Control)
과학의 여러 특징 중 '실험'을 통한 검증이 심리학에서 중요!

Science!

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일화
'시골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어느날 저녁,
이웃이 사방으로 걸을하고 이상한 멜로디를 읊조리고, 작은 북을 치면서 앞 잔디밭 주위
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 달 동안 같은 의식을 목격하고 난 후 그 남자는 궁금함에 사로 잡혀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왜 매일 저녁마다 똑같은 의식을 하는 건가요?
"내 집을 호랑이로 부터 안전하게 지키려고요."
여기서 1000마일 안에는 호랑이가 없다는 걸 모르나요?
"이 의식 때문에 호랑이가 없는겁니다!"

정명미, 김예린, 양유진, 양소경, 장현숙 역, (2010). 응용행동분석(상) 제2판. 시그마프레스.

이제 심리학이 뭔지 알았는데..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HOW

심리학하면 어떤 내용을 떠올리나요?



PART1

사람들은 어떻게 자제력을 발휘하는가
5장 마시멜로 유혹에 어떻게 대처할까



제1장

이런 사람과 밥 먹지 마라
생선구이에 숨씨 종게 레몬을 뿌리는
사람 → 뻔뻔한 사람

K.E. 스타노비치, 심리학의 오해



-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심리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대체로 착각이다. 많은 서점의 "심리학" 서가에 꽂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심리학계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 대중매체가 "심리학자"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계에서는 "심리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30년생 서북간 외출은 좋지 못할 듯. 42년생 긴긴한 정신에 활기도 있겠다. 54년생 설
각하지 않은 귀인의 도움이 온다. 66년생 보고 싶은 사람 만나기 좋은 날. 78년생 막힐
이 해소되어 거만 하루. 90년생 최선 다하면 이루게 된다.



31년생 생각하지 않은 폭발사고 조심. 43년생 역마가 발동하니 움직이면 이득. 55년생
말안이 예상되는 일 조심하도록. 67년생 문제가 깊어져 소원상해. 79년생 서둘러서 이
상 만나지 말라. 91년생 목표 설정을 확실히 할 것.



32년생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렷. 44년생 상황 대처를 지혜롭게 처신. 56년생
하늘의 구름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68년생 옷 잘 차려입고 발길 걷는 격. 80년생 아
발. 92년생 역행하지 말고 순리 따를 것.

별의 근원이다. 45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57년생 청
없이 살라 하네. 69년생 어려움을 있어도 좌를 내지 말 것. 81년생 뜻
93년생 망설이고 기쁘게 보내도록.

인생의 길은 각자 다르다. 46년생 나뭇가
필요. 70년생 두

47년생 표를 단
71년생 재물은 마

당신의 별자리
물고기자리
2.20 - 3.20

천칭자리(9.24~10.23)
이름은 로망스가 되어야 성공한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라).
커뮤니케이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47년생
매우, 잘 표현되는 통스카프가 그의 마음을 밝혀준다.
천칭자리 스타 서장은, 배우나

InStyle

가짜 심리학,
Pseudoscience



S.브라이어스, 엉터리 심리학



영리심리학
S. Bryer

아이러니 하게도 현대 생활이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터무니 없을 정도로 단순화된 생각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엉터리 심리학의 중요한 단점은 이것이 별자리 운세보다도 훨씬 덜 정교하고 연관성이 떨어
진다는 것이다.

질서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우리는 동그란 원을 네모난 구멍에 억지로 밀어넣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2차원적 분류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만다.

우리는 배우자의 일부 특징들에 집착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화성이나 금성에서 왔다고 증명하려 하면서,
실제로 그 특징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애써 무시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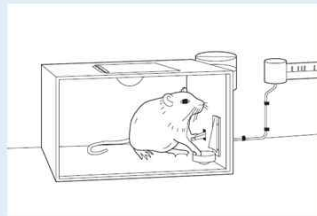


대표적인 실험 연구 1

인간은 주무르는 대로 만들어진단다 B. F. 스키너

B.F. 스키너의 보상과 처벌에 관한 행동주의 이론

'우리의 가장 친한 여자 친구가 기분 내킬 때만 전화를 거는 못된 애인의 전화를 애달프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평소에 멀쩡한 남자가 연기 자욱한 카지노에만 가면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도박을 하다가 끔찍한 지경에 이르는지 말이다. 왜 여자들은 지나친 사랑을 하고, 남자들은 위험할 정도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가? 그것은 소위 '간헐적 강화'라는 것으로, 스키너는 그 메커니즘과 우연성이 가진 강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Skinner Box

스키너는 쥐를 자신의 상자 안에 넣어 연구
음식을 보상으로 사용하여 쥐의 행동을 통제

로렌슬레이터, (2005).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예코의서재

대표적인 실험 연구 2

엽기 살인 사건과 침묵한 38명의 증인들

달리와 라타네의 사회적 신호와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책임의 분산으로 인한 방관자 효과를 연구
집단의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질 권위자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함

여러 피실험자들이 격리된 방 안에서 2분간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도록
다른 피실험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나 방이 달라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볼 수 없었음
피실험자들은 갑자기 누군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소리를 듣게 됨
6분 지속-피험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기회가 충분한 시간

대다수의 피험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한 사람은 오직 31%에 불과했음

집단의 크기를 다양화!
도와줄 사람이 본인을 제외 네 명 더 있는 경우 31%가 도움을 청함
도와줄 사람이 본인 뿐일 때 85%가 도움을 청함

 <https://youtu.be/5p1KiR-xJJw>
38명의 목격자

로렌슬레이터, (2005).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예코의서재

대표적인 실험 연구 3

제정신으로 정신병원 들어가기

데이비드 로젠한의 정신진단 타당성에 관한 실험

데이비드 로젠한은 총동적으로 여덟 명의 친구들을 불러모아 말했다.
"다음 달에 바쁘니? 가짜로 정신 병원에 들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않을래? 우리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알아내는가 보자고."

여덟 명의 사람이 정신병 환자처럼 가장시킨 후 여러 병원에 나누어 들어감. 7명은 정신분열병(조현병), 1명은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진단 받고, 7일 ~ 52일 (평균 19일) 입원

로젠한의 실험 발표 후 정신병원이 '3개월간 가짜 환자를 보낼 것을' 제안. 3개월 뒤 그 병원은 '가짜 환자 41명을 찾아냈다.'고 발표. 그러나 로젠한은 가짜 환자를 보내지 않았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개정엔 큰 기여

로젠슬레이터, (2005). 스카너의 심리상자 열기. 예코의서재

대표적인 실험 연구 4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은 진짜 기억인가?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가짜 기억 어식 실험

'실제 삶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In real life, as well as in experiments, people can come to believe things that never really happened.'
Elizabeth Loftus

증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가짜 기억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

기억의 광고성을 반박
증인 심문시 묻는 적절한 질문 방법에 대한 제언
기타 기억 연구에 공헌

로젠슬레이터, (2005). 스카너의 심리상자 열기. 예코의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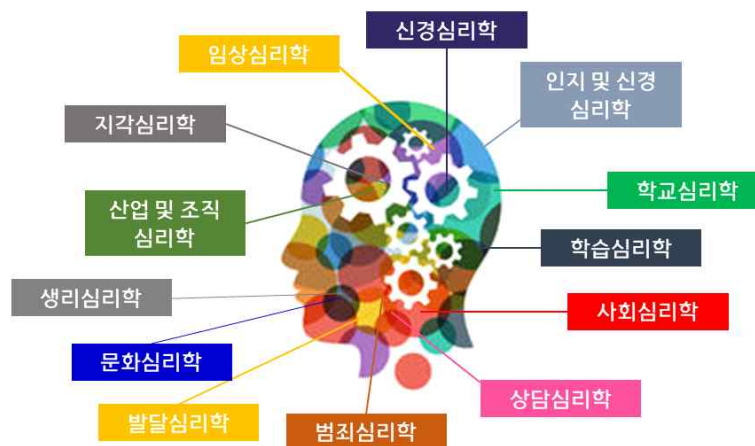
심리학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목차

- 제 1 장 심리학 : 과학의 진화
- 제 2 장 심리학 연구방법
- 제 3 장 신경과학과 행동
- 제 4 장 감각과 지각
- 제 5 장 기억
- 제 6 장 학습
- 제 7 장 언어와 사고
- 제 8 장 의식
- 제 9 장 지능
- 제 10 장 정서와 동기
- 제 11 장 발달
- 제 12 장 성격
- 제 13 장 정신장애
- 제 14 장 정신장애의 치료
- 제 15 장 스트레스와 건강
- 제 16 장 사회심리학

다양한 심리학 분야



2022년 전국 대학 교양 심리학 과목 개설 현황	학교명	개설 교양과목명	학교명	개설 교양과목명	학교명	개설 교양과목명
	KAIST	HSS133 심리학개론 HSS333 심리학특강 HSS433 Brain and Cognition HSS436 심리철학	경남대학교	000088728 마음을 읽는 심리학	서강대학교	SHS2007 생활속의 심리학 SHU4054 인간관계의 심리와 대인관계 기술
UNIST	UNIST	SLA171 인간행동의 과학 SLA730 심리학 특강	경북대학교	CLTR078 심리학의 이해 CLTR572 명상과 심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180 심리학 100066 행복심리학
	가천대학교	심리학의 이해 심리학과 예술 인간관계의 심리학 예술과 정신건강	경성대학교	11020928 마음의 문제 11020938 직장과 심리학 11020989 철학의 심리학 11021092 심리학으로 푸는 스트레스 11021081 20대를 위한 행복심리학	서울대학교	100034 일과 역량의 심리학 100035 선택과 의사결정의 심리학 045.012 심리학개론 045.013 인간관계의 심리학 L0549.001400 곳 라이프 심리학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06389 뇌와 인지 05765 남성과 여성의 심리학 00729 인간관계 06348 긍정의 과학	경원대학교	YP094 뇌심리와 교육 YP134 마음, 뇌, 그리고 교육 YP037 인간행동의 심리학 YP272 사랑심리학 YP275 성문화와 심리 YP315 심리학의 이해	서울여자대학교	UBSG1017 심리학의 이해 UBSG1039 의사결정의 심리학 UBHE1047 사람이 보이는 관계의 심리학 UBHE1048 마음챙김치료와 행복심리학
	강원대학교	06254 스트레스와 적응 06255 인간성장의 심리학 06958 인간의 감정 1220016 권력과 인간 1210021 실패의 심리학 1220014 범죄와 심리	경일대학교	인간심리와 감정치유 영화를 통한 심리의 이해 불교와 정신분석학 행복의 심리과학	성균관대학교	GEDH022 성의 심리학 GEDH023 사랑의 심리 GEDH025 아동의 심리와 교육 GEDH008 심리학입문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1220080 심리학의 이해 BKSA58382 지구를 위한 현대미술 BKSA63056 인간행동과 사고의 심리학 BKSA11410 현대인과 정신건강 BKSA59392 소비자마케팅	경희대학교	꼭짓기와 진화심리학 인간행동의 이해: 심리학 재미있는 대인관계 심리학 자기공정을 위한 글쓰기	성신여자대학교	SA030700 공통 사회 심리의 이해 SS030900 현대인의 정신건강 SS011500 현대 심리의 이해
	건국대학교	00036K 심리학 입문 00009K 감성과 뇌 00027L 긍정의 심리학	계명대학교	PSYCI110 심리학의 이해 GESO1110 행복의 심리학 GESO153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조절 GESO155 사랑의 심리학	숙명여자대학교	21000282 심리학개론 21104701 교과서 밖의 심리학 21102372 놀이의 심리학 21000830 아동심리학 21003387 영화로 읽는 이상심리학 21103052 패션치료심리학 21009908 행복으로 가는 심리학
경기대학교	건양대학교	AS268 문제행동의 심리 AS269 현대사회와 심리학 AS409 인간과 조직에 대한 이해 AS855 현대인의 정신건강 AS903 범죄자 마음을 엿보다: 안전한 사회를 AS936 적응과 이상심리	광운대학교	성과 심리학(L3) 인간 심리의 이해(L3) 긍정심리와 창의와 몰입 사회심리학 스트레스와 뇌건강	연세대학교	UCD1102 현대사회와 심리학 YCE1601 대인관계의 심리학 YCE1603 마음이란 무엇인가 YCE1604 성과 성차의 심리 YCE1605 이상행동의 심리 YCE1606 스트레스의 과학과 적응의 삶 YCG1804 인간의 감정, 감정의 인간
	경기대학교	AS268 문제행동의 심리 AS269 현대사회와 심리학 AS409 인간과 조직에 대한 이해 AS855 현대인의 정신건강 AS903 범죄자 마음을 엿보다: 안전한 사회를 AS936 적응과 이상심리	광주대학교	긍정심리와 창의와 몰입 사회심리학 스트레스와 뇌건강 마음상담과 심리학의 만남 문학 속의 심리학 사회적 행동과 성격심리학	연세대학교	UCD1102 현대사회와 심리학 YCE1601 대인관계의 심리학 YCE1603 마음이란 무엇인가 YCE1604 성과 성차의 심리 YCE1605 이상행동의 심리 YCE1606 스트레스의 과학과 적응의 삶 YCG1804 인간의 감정, 감정의 인간

개설된 심리학 교양과목의 장단점

장점

- 개론 수준의 과목과 특정 주제를 다루는 과목 (예, 스트레스와 적응, 대인관계, 성의 심리학 등)으로 이분화
- 대다수의 과목이 과학으로써의 심리학 강조
- 사실 위주의 내용 전달
- 방대한 심리학적 지식의 전달

단점

-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과목이 관찰됨
- 일부 과목은 수강자들의 관심을 끌 제목과 내용을 선정
- 실제 생활에 이용하는 지식보다는 지식전달에 집중
- 수강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심리학 교양과목에 대한 제언

반드시 포함할 내용

- 과학으로써의 심리학에 기반
 - 심리학 연구방법론
 -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반한 내용 소개
 - 통계
- 최신 연구결과에 기반한 내용
- 과학적 사고방식의 교육

고려할 사항

- 삶에 유익한 내용
- 수강자가 흥미를 가지게
-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
- 최신 기술 사용

개론 수준의 과목에 대한 예

로렌슬레이터,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1. 인간은 주무르는 대로 만들어진다
2. 사람은 왜 불합리한 권위 앞에 복종하는가?
3. 엽기 살인 사건과 침묵한 38명의 증인들
4. 사랑의 본질에 관한 실험
5. 마음 잠재우는 법
6. 제정신으로 정신 병원에 들어가기
- ...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롭고 대표적인 실험 10가지를 배경과
후속애기까지 모두 들려준다
심리학에 대한 소개 도서로 강추

로저 R. 호크, 심리학을 변화시킨 40가지 연구

- 1 생물학과 인간행동
- 2 의 식
- 3 학습과 조건화
- 4 지능, 인지 그리고 기억
- 5 인간발달
- 6 정서와 동기
- 7 성 격
- 8 정신병리
- 9 심리치료
- 10 사회심리



지난 100년간 심리학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40개의 연구들

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 연구방법,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지식을
모두 보여준다
심리학 소개도서로 적절

특정 주제에 대한 과목의 예

댄 에리얼리, 거짓말하는 착한사람들

- 1장 무엇이 선택을 조종하는가 - 비용편익분석
- 2장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 퍼지요인 이론
- 3장 경제적 동기가 우리를 눈 멀게 할 때 - 이익충돌
- 4장 힘들 때 자주 실수하는 진짜 이유 - 자아고갈
- 5장 짝퉁 상품이 부정행위를 조장한다? - 자기신호화
- 6장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 자기기만
- 7장 우리는 모두 타고난 이야기꾼 - 창의성과 부정직함
- 8장 부정행위도 전염된다 - 사회적 전염
- 9장 타인을 위한 부정행위 - 사회적 의존
- 10장 진짜 무서운 범죄



자신에 대한 기준의 느슨함, 그리고 융통적인 적용
나는 되지만 남은 되지 않는 비 일과적인 룰의 적용
하나 하나의 실험이 모두 이를 지지한다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다.
결론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조심하자?

로이 F. 바우마이스터, 의지력의 재발견

- 01 의지력은 하나의 은유 그 이상인가
- 02 의지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 03 체크리스트의 간략한 역사: 하나님에서 드루 캐리까지
- 04 결정의 피곤함
- 05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수량화한 자아는 답을 알고 있다
- 06 의지력은 강화할 수 있는가
(데이비드 블레인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도)

...



자기 고갈 이론

지금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력이 다른 일에 모두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의지력은 키울 수 있다. 어떻게??

월터 미셸, 마시멜로 테스트

- 1장 왜 어떤 유혹은 그토록 강렬한가
- 2장 아이들은 어떻게 참는 걸까
- 3장 유혹은 뜨겁고 기다림은 차갑다
- 4장 엄마의 양육과 자제력
- 5장 마시멜로 유혹에 어떻게 대처할까
- 6장 뜨거운 베짖이와 차가운 재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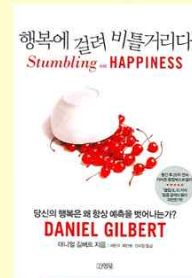


마쉬멜로우 실험이후 자기통제력에 대한 재미난 실험들
그리고 그 결과의 적용

자제력도 연습하여 늘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니얼 길버트,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 Chapter 1_ 상상, 미래로 가는 여행
Chapter 2_ '안'에서 '밖'을 내다보기
Chapter 3_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Chapter 4_ 마음의 눈에 존재하는 맹점
Chapter 5_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위력
Chapter 6_ 현재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하다
Chapter 7_ 시간을 상상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



행복에 대한 심리실험과 경험적 연구 결과를 총 망라해 제시하여
행복에 대한 인지 과학적 해석을 제시하는 책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여행을 하면 즐거울 것 같은데, 왜 여행이 스트레스지?

조지 베일런트, 행복의 조건

- 1장. 성인발달연구, 그 지나간 여정
2장. 사람은 안팎으로 어떻게 성숙하는가
3장. 어린 시절이 인생을 좌우하는가
4장. 생산성: 만족스러운 인생의 열쇠
5장.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의미의 수호자
6장. 통합의 시간: 죽음이며, 오스대지 마라
7장. 두 번째 관문: 건강하게 나이 들기
...



1940년 하버드 대학 1년생들.
매 5년마다 그들에 대한 추적조사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행복의 조건...

같은 시작과 다른 끝.

[발표 III]

교양과목으로서의 경제학,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 박철성 교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양과목으로서의 경제학,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대학에서 경제학은 경영학 다음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 전공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학문 분야다. 대학알리미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나 학부의 전공 분류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경제학 전공 학과나 학부는 총 113개이다. 반면에 예를 들어 철학·윤리학 전공 학과 또는 학부는 49개, 사회학은 39개, 교육학은 88개 등으로 경제학보다 훨씬 적다. 경영학 전공 학과나 학부는 393개로 다른 학문을 압도한다.¹⁾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전공자를 위한 과목을 많이 수강하며,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경제학 비전공자를 위해 경제학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한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 경제학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지만, 우리나라 경제학 교강사 사이에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과목으로 경제학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공자를 위한 경제학원론 과목과 거의 똑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교강사의 관심 분야에 맞춰 경제학 주변부 학파의 주장이나 일부 내용만을 교육하기도 하며, 경제학 학문의 핵심과는 동떨어진 내용(예를 들어 세금, 주식투자, 부동산 등)을 경제학 교양과목으로 포장하여 가르치기도 한다.

전공자와 거의 같은 내용을 교양과목으로 수강한 학생들은 그래프와 수식, 많은 개념과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여 경제와 경제학에 대해 이해는 하지 못하고, 경제학은 현실성이 없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만 얻기가 십상이다. 경제학 주변부 학파의 주장이나 일부 내용만을 배운 학생들은 수강 후에 오히려 경제와 경제학에 대해 오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제학 학문과 동떨어진 내용을 배운 학생들은 정작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 글에서는 교양과목으로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강사가 범하기 쉬운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비전공자에게 경제학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경제학 교양과목의 요건, 필요성, 내용, 방법 등을 다루고자 한다.

2. 경제학 교양과목이 갖춰야 할 요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 따르면 “교양기초교육이란 대학 교육과 평생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 및 자율적 학문 탐구 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는 데

1)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r/mjrinfor0460/doInit.do>에서 2023년 1월 2일에 검색한 결과이다.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통합적 자유교육이다. 또한 교양기초교육은 초연결·초지능 사회, 다양한 위기의 지속이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객관적 사실 인식을 토대로 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주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경제학은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 science education) 영역에 포함되는데, “자유학예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지반과 여건,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관한 총괄적인 지적 조망을 갖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을 그 목표로 한다.

교양기초 교과목은 ① 특수하지 않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 포괄성, ②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갖는 학술적 대표성, ③ 그 학술적 수준이 대학 교육 전반에 미치는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자유학예교육 영역의 교양과목은 핵심적 주제, 넓은 시각, 다양한 관점, 유기적 통일성, 통합적 개방성, 시의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술성이 빈약(예를 들어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 대학 밖에서 개설되는 부동산 강좌 등)하거나 기초학문이 아닌 교과목(예를 들어 경영학, 법학, 행정학 등 응용사회과학, 의약학, 각종 공학 등)은 자유학예교육의 교과목이 될 수 없다.²⁾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과 그에 따른 행동의 동기와 선택, 그 결과를 분석한다. 현대 경제학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은 그의 저작 『경제학의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의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다.

정치경제학 혹은 경제학은 일상적인 삶 속의 인간에 관한 연구이다. 경제학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얻고 쓰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과 사회의 행동을 살핀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한편으로는 부(富)에 관한 연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하게도, 인간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이다. 인간의 특성은 종교적 이상을 제외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매일 하는 노동과 그로부터 얻는 물질적 자원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낸 두 중요한 힘은 종교와 경제였다.

[Political Economy or Economics is a study of mankind in the ordinary business of life; it examines that part of individual and social action which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attainment and with the use of the material requisites of wellbeing.

Thus it is on the one side a study of wealth; and on the other, and more important side, a part of the study of man. For man's character has been moulded by his every-day work, and the material resources which he thereby procures, more than by any other influence unless it be that of his religious ideals; and the two great forming agencies of the world's history have been the religious and the economic.]³⁾

2)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 관한 내용은 https://konige.kr/data/general_edu.php에서 참조하거나 인용하였다. 2023년 1월 2일에 접속한 내용이다.

3) Alfred Marshall(1890), *Principles of Economics*, Book 1, Chapter 1. https://www.econlib.org/library/Marshall/marP.html?chapter_num=2#book-reader의 영어 원문과 본 저자의 번역임.

예를 들어, 고전적인 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며,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 자신의 이득 혹은 효용을 최대화 하는 것이 인간 행동의 동기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 선택의 규칙을 도출하고, 제약 조건(예를 들어, 물건의 가격)이 달라지면 선택(예를 들어, 물건의 수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개인, 정부, 기업과 같은 구성원의 선택이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런 틀은 경제학의 고전적 영역인 상품 시장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교역이나 외교 관계에서 국가의 선택, 교육 제도와 학생·학부모의 선택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 경제적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현상을 이해하거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보편적 포괄성’을 갖춘 학문이다.

경제학의 학술적 깊이는 다 알려진 사실이므로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다. 사실 교양과목으로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깊이까지 가르쳐야 할지를 정하기가 어렵다. 어떤 주제가 경제학의 핵심적 주제인가, 어떻게 넓은 시각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것인가, 다양한 주제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느 깊이까지 다뤄야 경제학의 개방성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시의성을 갖기 위해 어떤 사회 현상에 경제학의 분석 틀을 이용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교양과목이라면 쉽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내용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엄밀성을 따지다 보면, 그래프나 수식을 이용한 분석이나 예외적인 현상에 집착하기 쉽다. 학생들에게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직관적으로라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최강식, 2020, p. 134)

경제학 교양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인간 행동과 그로부터 초래되는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얻고, 경제학적 분석 틀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익히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경제학 교양을 얻도록 하는 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제학 교양과목에서 가르칠 기본 개념

3.1. 자원의 희소성(scarcity)

희소성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한 사회의 자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도 그 구성원 개개인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 수준을 모두에게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자원이 희소하므로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셜은 경제학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얻고 쓰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과 사회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는데, 필요한 물질이 무한하게 있다면 선택의 문제가 없고, 경제학이란 학문이 필요 없을 것이다.

맨큐(Mankiw)는 경제학을 ‘사회가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Mankiw, 2015, p. 4). 이는 마셜의 정의와 거의 같은데 자원 혹은 물질의 희소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경제학을 정의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원은 희소하다. 자원의 희소성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제약조건’이다.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이 제약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사람의 정치 사회 경제 체제도 이 제약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희소자원의 관리 방법은 역사, 지리적으로 다양했다. 고대사회나 중세사회 또는 공산주의 국

가에서는 한 사람(예를 들어 군주, 독재자) 혹은 소수(예를 들어 귀족, 공산당 지도부)가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했지만,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는 무수한 가계(개인을 포함)와 기업의 행위에 따라 자원이 배분된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은 ‘시장에 참가하는 가계와 기업의 선택과 그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household)는 얼마나 일하고 무엇을 사며, 얼마만큼 소비하고 저축할지(또는 빚을 낼지), 그 저축을 어떻게 투자할지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 기업(firm)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할지, 어떤 가격에 생산품을 팔지, 이윤을 어떻게 처리할지, 얼마나 투자할지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 가계와 기업은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결과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격과 거래 수량,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수준, 자본의 수익률 등이 결정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그 결과가 물가수준, 국민소득, 실업률, 이자율 등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의 결과가 모두 경제학의 연구 주제이다.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이 자원의 희소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경제학이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런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자원의 희소성을 제대로 인식한 학생은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학적 사고가 도움이 됨을 깨닫고 학습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3.2.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자원이 희소하므로 어떤 선택이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주어진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희소하므로 한 시간을 노는 데 쓴다면 그 시간만큼 일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해야만 한다.

또 가계 차원에서는 유한한 소득을 소비하는 데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 일부를 새 티브이를 사는 데 쓴다면 그 소득을 다른 물건을 구매, 소비하는 데 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여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여야 한다.

사회 전체로 보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높아지고, 기업의 매출과 이윤이 줄고, 임금은 낮아지게 된다.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로 사람들은 더 깨끗한 환경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누리게 되지만, 기업주나 근로자,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러 선택지가 있다면 가계나 기업은 각 선택지를 택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 이득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평가하고, 이득이 비용보다 큰 선택지를 고를 것이다. 비용에는 그 선택지를 고름에 따라 들어가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 선택지의 기회비용은 그 선택지를 고를 때 포기하게 되는 다른 모든 선택지의 이득과 직접비용의 차이 중 가장 큰 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할지 혹은 취업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먼저 대학원에 진학하든 취업하든 이 사람이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나 식비는 같고, 취업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데 다른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직접비용은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내는 (장학금을 제외한) 학비, 책값 등이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얻는 이득은 졸업 후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아 취업하여 얻는 소득(정확하게는 소득의 현재가치)의 합계이다.⁴⁾ 대학원에 진학하는 기회비용은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학사 학

위만으로 취업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현재가치)의 합계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대학원 졸업 후 얻는 소득이 직접비용과 학사 학위 취득 후에 취업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합계보다 크면 진학하고, 작으면 취업할 것이다.⁵⁾

학생들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대학원 진학의 예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석사 학위자와 학사 학위자의 임금 격차가 큰 분야는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고, 작은 분야는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적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대체로 이공계열은 전자에 해당하고, 인문사회 계열은 후자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로 직업이 있는 여성은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출산의 기회비용(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소득)이 더 크므로 전자가 후자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3.3.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

사회적 자원의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효율성은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고,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이 균등하게 이득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은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의 부를 늘리는 것이고, 형평성은 사회의 부를 구성원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사회적 선택이 추구해야 할 기준이다. 두 선택지의 효율성이 같다면 형평성이 더 높은 것, 형평성이 같다면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형평성을 둘 다 높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 간에 상충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여서 복지 혜택의 수혜자를 늘리는 정책을 생각해보자. 이 정책은 사회의 부를 더 고르게 분배하여 형평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높아진다면 고소득자는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이 작아지므로 전보다 일을 덜 하고 소득을 낮추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는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일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또 다른 예로 최저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생각해보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높아지고, 사용자의 이윤은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용자는 비용이 커지므로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학은 사회적 선택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둘 간에 충돌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전자는 실증의 영

4) 현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용을 현재의 값으로 환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투자 수익률이 5%일 때 지금 952,381원을 투자한다면 1년 뒤에는 그 가치가 100만 원($=952,381 \times 1.05$)이 된다. 따라서 1년 뒤에 100만 원을 버는 것이나 지금 952,381원을 버는 것이나 그 가치는 같다. 다시 말하면 1년 뒤 100만 원의 현재가치는 952,381원이다. 연간 수익률 또는 할인율이 r 이라면, n 년 뒤 소득 또는 비용 y 의 현재가치는 $y \div (1+r)^n$ 이다.

5) 대학원에 진학하든 취업하든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나 식비는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이 비용은 두 선택지를 비교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다르다면 각 선택지의 순 이득을 계산할 때 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역이고 후자는 규범의 영역인데, 실증의 영역에서는 경제학에 충분한 합의가 있지만, 규범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실증경제학의 영역을 주로 배우게 될 것이다. 규범의 영역은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치의 영역이므로 경제학에서 특히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이 효율성과 형평성 및 둘 간의 연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실증경제학을 배우다 보면 이론적 결과를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적 분석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가정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 가정을 규범으로 받아들여서 “시장주의자는 남을 돕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거나 “시장을 통해 이뤄진 경제적 결과는 항상 옳다”라거나 “후진국의 사람들은 비합리적이어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곤란하다. (최강식, 2020)

둘째, 효율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윤을 죄악시하여 기업이 생산품의 가격을 낮추고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예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높은 최저임금)을 편다면 일부 기업은 도산하거나 생산을 줄일 것이고, 투자가 줄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므로 어떻게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여 각종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역시 사회의 부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셋째, 겉으로는 형평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이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을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공공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사적으로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 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나라에서 고소득자는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사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의사를 만나 처치를 받기도 한다. 이 경우 사적 의료보험의 존재는 형평성을 해치므로 이런 의료보험을 불법화한다면 형평성이 높아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적 의료보험이 불법화되면 공공 의료서비스 대기자가 더 늘어나서 저소득자도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사적 의료보험을 불법화하면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학생들이 경제학을 배우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고 둘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교육한다는 교양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3.4. 한계(margin)

경제학에서 보통 가정하는 합리적 사람(rational person)은 ‘자신의 기회와 정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주어진 제약하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Mankiw, 2015)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알고 있는 가격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가장 만족할 만큼 재화를 구매하고자 한다.⁶⁾ 이 소

6) 소비자가 소비함으로써 삶의 만족도(‘효용’)가 높아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재화(goods)라고 한다. 소비함으로써 만족도가 낮아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비재화(bads)’라고 한다.

비자는 소득에 한도가 있으므로 한 재화를 더 구매하면 다른 재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한 재화를 구매할 때의 직접비용(재화의 가격)과 이득(만족의 증가) 및 기회비용(다른 재화를 구매하여 얻는 이득과 그 재화의 가격 간 차이)을 고려할 것이다. 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해보면 결국 한 재화의 구매를 조금 늘렸을 때 이득과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제학 용어로는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에 주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한 소비자가 소득 한도 내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두 과일의 개당 가격은 같다고 하자. 또한 이 소비자는 사과와 오렌지를 둘 다 좋아하지만 한 가지를 계속 먹으면 점점 질리게 되어 한 과일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과일을 먹어서 얻는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하자.⁷⁾ 이 소비자는 사과와 오렌지를 각각 얼마나 사야 할까? 이를 알기 위해 구매할 수 있는 사과와 오렌지 개수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나열하고 각 조합의 이득과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는 한계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쓸 수 있는 소득이 유한하므로 사과를 한 개 더 사면 오렌지는 한 개 덜 살 수밖에 없다. 이때 사과를 한 개 더 먹어서 얻는 만족도의 증가분(‘한계효용’)과 그 기회비용 즉, 오렌지를 한 개 덜 먹어서 잃는 만족도의 감소분(‘한계기회비용’)을 비교해보자. 사과를 하나 더 사 먹어서 얻는 한계효용이 오렌지 하나를 덜 먹어서 잃는 한계기회비용보다 크다면 사과를 하나 더 사고 오렌지는 하나 덜 사는 것이 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사과를 더 살 때마다 얻는 이득은 줄고 포기하는 기회비용은 점점 커진다. 그러므로, 이 소비자는 사과의 한계효용이 오렌지를 포기하는 한계기회비용보다 클 때까지는 사과의 소비를 늘리고 오렌지의 소비를 줄이다가 사과의 한계효용이 포기하는 한계기회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사과와 오렌지의 양을 정할 것이다.

한계의 개념은 이같이 최적화(optimization)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제학의 여러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나아가 여러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호텔경영자가 숙박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생각해보자. 호텔에 투숙객이 없어도 하루를 운영하는 각종 비용(세금, 인건비, 전기요금 등등)이 500만 원이고 방이 50개가 있어서 방 하나당 평균 최소 10만 원 비용이 든다고 하자. 그러면 방 하나당 10만 원 이상의 숙박료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숙박료가 방 하나에 투숙객을 받는 데에 드는 추가 비용(예를 들어 청소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보다 비싸다면 방을 비워두는 것보다 숙박료를 10만 원보다 낮게 책정해서라도 손님을 늘리는 것이 이윤을 늘리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이해한다면 비수기에 호텔 숙박료가 왜 그렇게 싸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한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한계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숙박료의 예와 같이 한계의 개념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학생들이 더 접근하기 쉬울 것이다.

3.5. 수요곡선(demand curve)과 공급곡선(supply curve)

한 가게가 각종 재화를 사는 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결과로 정해지는 한 재화의 가격과 그

7) 이 가정을 보통 ‘한계효용 체감(diminishing marginal utility)’의 가정이라고 부른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가정이지만,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것이 실제로 일반적이라고 받아들여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양(‘수요량’) 간의 관계를 그 재화에 대한 그 가게의 개별 수요곡선이라고 하고, 그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가게의 수요량의 합과의 관계를 시장 수요곡선이라고 한다. 한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결과로 정해지는 한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공급량’) 간의 관계를 그 재화에 대한 그 기업의 개별 공급곡선이라고 하고, 그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를 생산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의 공급량의 합과의 관계를 시장 공급곡선이라고 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예산제약하에서 효용극대화과 이윤극대화의 문제를 풀어서 도출할 수 있지만 경제학 비전공자에게 그런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교강사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다. 굳이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아도 논리와 직관, 간단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수요(공급), 수요(공급)곡선, 수요량(공급량)을 구분하는 것이다.⁸⁾ 수요가 상황에 따라서는 수요곡선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요량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강사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에 주의하여야 한다(최강식, 2020).

첫째, 수요곡선의 독립변수는 재화의 가격이며 종속변수는 수요량임을 학생들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결정되는 것이지 수요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둘을 혼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학에서 수요곡선을 그릴 때 보통의 관행과 반대로 독립변수를 수직축, 종속변수를 수평축에 놓고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이다. 비전공자 학생들은 특히 혼동하기 쉽다. 또 다른 이유는 시장수요곡선 또는 시장공급곡선이 이동하면 균형가격이 변하는 것을 보고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수요량과 실제 구매량을 구분하도록 해야 한다. 수요량은 주어진 조건(예를 들어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에서 가격에 따라 가게가 구매하려고 하는 양이지 실제 구매량은 아니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가게가 구매하려고 하는 양은 줄고, 내려갈수록 가게가 구매하려고 하는 양은 커진다. 재화의 가격과 구매하려고 하는 양의 이런 관계가 수요곡선이다. 실제 구매량은 시장 가격이 정해진 다음에 그 가격에서의 수요량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셋째, 가격의 변동이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조건이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조건은 같고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격만 변한다면 수요량은 수요곡선상을 따라 이동하여 새로운 가격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재화 가격 외의 조건이 달라진다면 모든 가격에서 수요량이 달라진다. 즉, 수요곡선 자체가 바뀐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모든 가격에서 수요량이 늘어나서 수요곡선이 상향 이동하게 된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학생들이 용어와 그래프, 수요곡선의 도출 등에 집중하다가 정작 놓치기 쉽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요소시장에서도 등장하고, 거시경제학 분야에서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이 두 개념을 접할 때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학을 배우는 내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8) 간결하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수요, 수요곡선, 수요량에 관해 기술한다. 수요를 공급으로 대체하면 공급, 공급곡선, 공급량에 관한 논의로 바뀌 볼 수 있다.

3.6. 탄력성(elasticity)

탄력성은 경제학에서 한 변수(예: 재화의 가격)가 변동할 때 그 변수의 변동에 따라 다른 변수(예: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탄력도는 변화율의 비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로 나눠 계산한다. 보통 탄력도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도는 경제학에서 한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

학생들이 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면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 탄력도를 계산하거나 탄력성이 그 래프, 예를 들어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탄력성의 개념은 간단하지만 여러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탄력성의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알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탄력성은 선택지가 얼마나 다양한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지가 많으면 탄력성이 높고, 많지 않으면 탄력성이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청량음료는 가격이 오르면 쉽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근로자(예: 비행기 조종사)는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근로자(예: 단순 조립공)는 대안을 찾기 쉬우므로 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높다.

둘째, 탄력성이 정부 정책의 효과와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을 많이 감소시킬 것이다. 조세의 부담(‘귀착’)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에 대해 과세(예: 부가가치세)할 때 그 세금을 판매자가 내든지 구매자가 내든지 경제적 영향은 같다.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구매자가 더 큰 몫의 조세를 부담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판매자가 더 큰 몫의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의 귀착은 사회보험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실제로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사용자가 부담하는 몫이 커진다.

셋째, 탄력성이 단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는 다양한 재화나 생산요소가 있고, 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탄력성의 개념이 없이는 비교가 곤란하다. 예를 들어 단위가 서로 다른 주택의 수요와 쌀의 수요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탄력성은 변화율의 비율을 사용하여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둘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학생들이 이 점을 이해한다면 경제학에서 탄력성이 왜 그렇게 빈번히 사용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3.7. 잉여(surplus)

자유로운 시장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둘 다 그 거래로부터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가격이 자신이 그 상품을 사기 위해 기꺼이 낼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높지 않을 때만 그 상품을 구매할 것이다. 판매자는 자신이 받는 가격이 자신이 그 상품을 팔고 받기를 원하는 가격보다 낮지 않을 때만 그 상품을 판매할 것이다.

소비자가 낼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과 실제로 내는 가격 간의 차이가 소비자 잉여이고,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과 받기를 원하는 최소 가격 간의 차이가 공급자 잉여이다.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의 합계를 총잉여라고 한다. 소비자 잉여는 거래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또는 후생(welfare)의 척도이고, 공급자 잉여는 거래에서 공급자가 얻는 후생의 척도이다. 총잉여가 커질수록 거래에 참여한 소비자와 공급자의 후생은 커진다.

이 총잉여의 개념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배우면 시장에 가해지는 규제가 효율성을 해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경우에 규제는 규제가 없었다면 일어났을 거래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총잉여를 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식품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면 그에 영향받는 상품의 공급이 줄고(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그 상품의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러면 그 상품의 거래량이 줄고, 총잉여는 줄어든다.

3.8 외부효과(externality)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외부효과에 의해 초래되는 시장의 비효율성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삼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때에 발생한다. 제삼자의 후생이 나빠지면 부정적 외부효과, 후생이 좋아지면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생을 위해서는 시장에 참가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후생뿐만 아니라, 참가하지 않는 제삼자의 후생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제삼자에게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둘 간에 가장 효율적인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이 외부효과에 대해 배움으로써 정부의 시장 개입이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개입의 방식에 따라 정부 개입의 효율성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모든 기업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서 일정한 수준 이하로 맞추도록 규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세금(교정적 조세)을 매길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허용된 최대 수준까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에 따라 기업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한계비용이 조세보다 낮다면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한계비용이 낮은 기업은 전자의 규제에서 허용된 최대 수준보다도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한계비용이 큰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금만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늘릴 수도 있다. 조세의 수준이 높아지면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은 줄어들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조세를 매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조세는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이 낮은 기업부터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Mankiw, 2005)

4. 경제학 교양과목에서 가르칠 기본 이론

4.1.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은 경제학의 토대를 이루는 이론이므로 비전공자들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이론은 소비자가 가격과 소득의 제약하에서 어떻게 최적의 선택을 하는지를 다루고, 생산자 이론은 생산자(기업)이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기술의 제약하에서 어떻게 최적의 선택을 하는지를 다룬다.

소비자 이론에서 학생들은 예산제약, 소비자 선호, 무차별곡선, 효용함수, 효용 극대화, 수요곡선의 도출 등 경제학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과 이론을 배우게 된다. 소비자 이론을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 수학적으로 예산제약하의 최적화 문제를 풀거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프나 수식은 최소로 사용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어떤 교강사는 소비자 이론을 거의 가르치지 않고 바로 수요곡선을 가르치기를 선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이론을 통해 비전공자가 경제학적 사고의 기본을 배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학의 사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생산자 이론에서 학생들은 생산함수, 수입과 비용, 이윤, 한계비용, 이윤극대화, 공급곡선의 도출 등과 같은 개념과 이론을 배우게 된다. 생산자 이론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수학의 사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을 가르치면서 다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외적인 현상보다 이론적 기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비자 이론의 두 재화가 있는 모형에서는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인 경우가 기본이다. 소비자 이론에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가르친다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와 상대적 크기에 따라 재화를 정상재와 열등재로 구분하며 열등재 중 예외적으로 기펜재(Giffen goods)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⁹⁾. 기펜재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런 현상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드물 것이므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 기본 개념과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두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을 통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모형의 필요성과 한계를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배우는 두 재화가 있는 소비자 이론은 가격과 수요와의 관계와 같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을 단순화한 경제 모형의 한 예이다. 학생들은 이 모형이 현실과 매우 다르므로(예를 들어, 재화의 종류는 사실 무수하게 많고, 보통 소비자가 수요량을 결정할 때 의식적으로 최적화의 문제를 풀지는 않는다) 이 이론, 나아가 경제학이 비현

9) 한 재화의 가격 변동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의 소비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효과를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라고 하고, 가격 변동이 소비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므로, 재화의 소비량을 바꾸도록 하는 효과를 소득효과(income effect)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 재화의 가격이 내리면 소비자는 싸진 재화의 소비는 늘리고 가격이 내리지 않은 재화의 소비를 줄이고자 할 것인데 이는 대체효과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한 재화의 가격이 내리면 그 소비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고,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가격이 싸진 재화가 정상재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해 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증가한다. 가격이 싸진 재화가 열등재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 상대적 크기에 의해 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결정된다. 열등재 중에 소득효과가 매우 커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가격이 싸진 재화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실제로 재화 대부분은 정상재이며, 열등재는 예외적이라고 본다. 기펜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극히 드물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적인 수학적 조작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도 모형(예: 태양계 모형)을 이용하여 복잡한 현상(예: 공전과 계절의 변화)을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경제 모형이 다른 과학에서 사용하는 모형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학생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경제 모형을 이용하는 이유는 특정한 소비자나 기업의 행동이 아니라 전형적 특성을 가진 경제주체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경제 모형이 개별 소비자의 행동이 아니라 현실 경제 현상의 일반적인 핵심 결과를 잘 설명하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경제 모형의 장점뿐만 아니라 한계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경제 모형이 아무리 정교하고 복잡할지라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현실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많은 사실을 생략하고 가정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소비자 이론에서 배우는 기본 모형은 재화는 단 두 개이고, 소비자는 자신의 현재 효용 수준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며, 재화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는 등의 가정을 한다. 이 가정 중 하나라도 바꾼다면 모형의 결론은 달라진다. 비전공자는 이 모형보다 좀 더 현실적이지만 복잡한 모형(예를 들어 소비자가 현재의 효용이 아니라 평생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형, 가족 단위의 소비 결정 모형 등)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는 모형이 얼마나 가정에 의존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쉽다. 그러므로, 모형을 현실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서 모형에서 도출되는 이론적 결과를 규범으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경제학은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하는 등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경제학에서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 목적, 유용성, 한계를 모두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학생들이 한계의 개념과 최적화와 연결 관계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보통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무차별 곡선과 예산제약선의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미분을 이용하는 것을 배우고, 생산자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한계생산, 한계수입, 한계비용의 그래프나 미분을 이용하는 것을 배우는데, 한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계적으로 최적화의 문제를 푸는 것만을 배우면 최적화의 기본 원리를 놓치기 쉽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나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는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고려하여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면 소비나 생산을 늘리고, 그 반대이면 소비나 생산을 줄인다는 간단한 논리로 달성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한계편익은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생산자의 한계편익은 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이라고 하며, 두 재화가 있는 경우에 한계효용의 비율은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substitution)이라고 부르는 등 용어가 다양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다르게 부르는 것일 뿐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¹⁰⁾ 그래프가 그런 직관적 논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10)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재화 하나를 더 사서 얻는 편익(‘한계편익’)인 효용의 증가분(‘한계효용’)이 그 재화를 하나 더 사는 비용(‘한계비용’)보다 크면 재화를 하나 더 구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생산자가 재화를 하나 더 생산하여 팔아 얻는 수입(‘한계수입’)이 그 재화를 하나 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한계비용’)보다 크다면 재화를 하나 더 생산해야 이윤(=총수입-총비용)이 커질 것이다.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 가정하면 재화의 소비를 늘림에 따라 소비자의 한계편익은 점점 줄어들며 마침내는 한계비용(=재화의 가격)보다 작아지게 된다. 한계효용이 재화의 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소비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이다. 재화가 두 개이면 두 재화의 한계효용의 비율이 가격의 비율과 같아지도록 두 재화의 소비량을 맞추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4.2. 시장균형 이론

소비자와 생산자 이론을 가르칠 때 소비자와 생산자는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에 참가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시작하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사실 매우 비현실적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참가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무수하게 많아서 한 소비자 또는 한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생산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나오는 데 아무런 비용이나 제약이 없으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예를 들어 각 기업이 상품을 팔고자 하는 가격)를 정확히 알고 있고, 거래에 어떤 비용이나 제약도 없는 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한계비용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며, 생산자가 얻는 한계수입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다.

비전공자를 비롯하여 경제학을 깊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학이 가정하는 완전경쟁시장이 비현실적이므로 경제학 이론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리학의 운동법칙 이론이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아무런 마찰이 없는 진공 상태 안에 놓인 물체의 운동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도 실험을 위해 조작해 놓은 실험실과 같은 것이다. 경제학을 깊이 배우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소수이거나 하나뿐인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양의 정보를 가진 시장, 거래비용이 있는 시장 등에서의 경제학 이론에 대해 알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불완전하거나 비경쟁적인 시장이 비교되는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나아가 설사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비경쟁적이라도 완전경쟁시장에서 얻은 이론적 결과가 큰 문제 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에게 이같이 완전경쟁시장의 개념, 유용성, 한계를 두루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일치하는 양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고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프를 보면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균형이 달성된다. 학생들은 그래프의 균형점만 기억하고 시장균형의 의미나 함의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 학생들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장균형은 외부의 개입이 없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발적 선택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시장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 가격보다 낮춰서 판매하려는 공급자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늘고 생산량이 줄어들며, 시장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재화를 얻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내고 재화를 사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수요량이 줄어들며 생산량이 많아지고, 시장 가격이 균형가격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생산량이 일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둘째, 시장균형은 총잉여를 최대로 하므로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시장 거래량이 균형거래량보다 적으면 거래량을 늘려 수요자가 얻는 가치가 공급자가 내는 비용보다 높고, 시장 거래량이 균형거래량보다 많으면 그 반대이므로 시장균형에서 총잉여가 최대가 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삼자의 개입 없이 자발적 선택만으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시장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경쟁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효율성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완전경쟁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는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낼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즉, 소득)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에 생필품의 공급이 크게 부족해지면(공

급곡선의 좌측 이동) 균형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균형이 효율성을 최대
로 하지만, 폭등한 가격을 낼 만큼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크게 곤란을 겪
게 되므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완전경쟁시장과 대비되는 시장으로 독점이나 과점시장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비경쟁
적 시장에 대해 깊이 들어가면 이론이 복잡해지므로 비전공자에게는 독점 시장의 예를 들어 경
쟁적 시장과 비경쟁적 시장의 차이점, 특히 비경쟁적 시장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정도면 충분
하다. 독점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 가르칠 때 비효율성의 원인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독점 시장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독점 기업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
(시장수요곡선과 독점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보면 독점 기업의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가격이 내려가고
더 많은 수요자가 재화를 구매하여 얻는 가치가 기업에 추가되는 생산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
다. 독점 이윤의 존재 자체가 비효율성의 원인이 아니다.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그대로 두고 가
격을 내리면 소비자의 잉여는 늘고 기업의 이윤은 줄지만 총잉여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독점 이윤을 줄이는 정책(예를 들어 독점 기업의 이윤에 대한 과세)은 재분배정책이지 시
장의 효율성을 직접 높이는 정책은 아니다. 독점이 생기는 원인(예: 규제)을 제거하여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4.3.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시장의 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현상’(Mankiw,
2005)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 충족되면 아무런 외부의 개입이 없이 수요자와 공급자
의 자발적 선택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비효
율적일 수 있다.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규제(예: 특허권)나 규모의 경제로 인
한 독점이나 과점¹¹⁾, 외부효과(3.8절 참조), 비대칭 정보¹²⁾, 공공재¹³⁾ 등이 그 예이다. 교양과목에
서 이 모든 원인을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예를 들어 언급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시장의 실패가 있으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 방식은 다양하다. 독과점에는 법적으로 담합 행위 등을 금지하여 경쟁을 촉진한다든지 가

11) 독점의 원인이 되는 규모의 경제(increasing economy of scale)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량 한 단
위 당 평균총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 기업이 생산을 맡을 때 평균총비용이
여러 기업이 나눠 생산할 때 평균총비용보다 낮다. 상수도, 전기, 우편 산업 등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시장에서 독점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한다.

12)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는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람은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운전 성
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이 경우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품질과 양의 상
품이나 서비스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13) 공공재(public goods)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고, 한 사람이 소비하든지 여러 사
람이 소비하든지 편익이 줄지 않는 재화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공공재는 공급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아무
런 대가를 내지 않고도 같은 편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공급자가 그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돈을 받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철도, 지하철
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공공재이므로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제학적
으로 틀린 논리이다. 개찰구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대가를 내지 않고는 열차에 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
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철도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며, 여러 나라
에서 실제 그렇게 공급되고 있다.

격을 규제할 수 있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거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며, 공공재는 국가가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시장의 실패를 이해하고 정부의 역할을 인식한다면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정부의 개입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정부의 개입으로 사실은 더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학생들이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와 같은 자연독점 산업에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 규제가 수요를 늘리기는 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면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고 사업을 아예 그만둘 수도 있다.¹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기업을 보조하거나 기업에게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한다. 즉,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는 전기산업을 국유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공공기관은 기업보다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높일 동기가 약하므로 국유화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5. 경제학 교양과목의 구성

5.1. 전통적인 경제학 교양과목

전통적인 경제학 교양과목 강의의 목적은 학생들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기르며, 민주주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학의 개념과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의 4절과 5절에서 논의한 기본 개념과 이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과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전통적인 경제학 교양과목의 강의안이다. 한 주제에 1주나 2주 정도의 시간을 안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강의하면 10개 주제를 한 학기에 다룰 수 있지만, 주제별로 강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일부 주제는 매우 간략하게 다루거나 생략해야 할 것이다. 〈표 1〉보다 더 많은 주제를 다루면 생산요소시장, 독점과 과점, 국제무역이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강의할 수도 있다.

〈표 1〉 전통적인 경제학 교양과목의 강의안

순번	주제	개념
1	경제학의 정의와 필요성	자원의 희소성
2	선택의 기본 원리	기회비용, 효율성, 형평성
3	공급자 선택 이론	한계, 공급곡선
4	수요자 선택 이론	수요곡선
5	시장균형	잉여, 탄력성
6	시장의 실패	외부효과
7	국민소득	
8	경기의 변동	
9	경제의 성장	
10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14) 자연독점에서는 기업의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려면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야 하는데, 그 가격에서는 단위당 수입이 단위당 비용보다 낮으므로 기업이 생산하면 할수록 손실을 본다.

5.2. 대안 경제학 교양과목

경제학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벗어나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는 경제학이 아닌 ‘경제’에 중심을 두고 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Figart(2011)는 세 가지의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접근방식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과목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 보건, 인구 문제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문제를 고르고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경제학의 개념과 이론, 경제학의 응용 방식을 다루는 것이다. 환경 문제와 연관해서 학생들에게 외부효과, 시장의 실패 등을 가르칠 수 있고, 보건 문제와 연관해서 학생들에게 보험, 비대칭 정보 등을 가르칠 수 있으며,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노동 공급, 인적자본 등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팀티칭 형식으로 과목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 접근방식의 장점은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능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팀티칭을 한다면 같은 문제에 여러 학문 분야의 다른 접근방식을 학생들이 배우고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경제학 개념이나 이론을 각 문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따로따로 배우므로 학문적 깊이가 얕다는 것이 약점이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과목의 전반부에서는 경제학 개념과 이론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Guell, 2021).

둘째 접근방식은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경제 용어나 통계,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과 같은 노동시장 지표의 역사적 변동과 최근 움직임을 통해 노동시장의 상황, 그와 관련된 경제학 이론이나 정책에 대해 가르치고,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 현실을 객관적 통계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이슈를 알게 됨으로써 경제 문해력(economic literacy)을 갖추고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GDP, 실업률, 물가지수, 경제성장률, 소득분포 지표, 소득수준 등 학생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경제지표들은 많고 다양하므로 이런 통계들을 골라 과목을 구성하면 된다. 이 과목에서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각 통계와 관련된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에 대한 논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접근방식은 경제학 교양서적이나 경제 현실을 다룬 책, 기사 등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학에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Harford의 *The Undercover Economist*나 Levitt and Dubner의 *Freakonomics* 같은 책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blog나 YouTube, 신문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경제학에 재미를 느끼도록 유도하고 경제학적 사고가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다. 이 또한 학문적 깊이가 얕아서 학술성이 부족한 과목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제학 개념과 이론에 대한 전통적 강의와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최강식(2020), 「교양으로서의 시장경제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양교육연구』, 제14권 제6호, 133-146.
- Figart, D. M. (2011), 'Teaching Non-Majors,' in Hoyt, G. M. and McGoldrick, 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n Teaching and Learning Economics*, Chapter 40, Edward Elgar Publishing.
- Guell, R. (2021), *Issues in Economics Today*, 9th ed., McGraw-Hill.
- Harford, T. (2005), *The Undercover Economist*, Random House Publishing. (김명철 역, 『경제학 콘서트』, 웅진지식하우스)
- Levitt, S. D. and Dubner, S. J. (2006), *Freakonomics*, William Morrow & Company. (안진환 역, 『괴짜경제학』, 웅진지식하우스)
- Mankiw, N. G. (2015),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 South-Western. (김경환·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제7판, Cengage Learning)
-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https://www.econlib.org/library/Marshall/marP.html>.

[발표 IV]

교양으로서의 사회학

| 한준 교수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양으로서의 사회학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 들어가며

이 글은 교양교육의 일부로서 사회학에서 어떤 주제와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다룬다.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서 근대적 학문체계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지만, 이것을 교양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는가, 만약 포함된다면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간 체계적인 논의가 별로 없었다. 교양교육으로서 사회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사회학 개론을 가르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사회학개론을 사회학을 전공하려는 학부생에게 가르치는 것, 다른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른바 전공 기초로 가르치는 것이다. 전공 분야의 본격적인 학습을 위한 일종의 준비운동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교양교육을 사회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사회학 혹은 다른 사회과학 전공생만이 아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 뿐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등 학문적 성격이 전혀 다른 학생들에게도 사회학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전공 기초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과연 사회학을 이처럼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부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교양교육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양교육은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 분야의 전문화된 지식을 배우는 것과 별도로 고등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양교육이라는 말의 유래를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교양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이 나 소양을 키워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자유교육은 중세 이후 근대 초기까지 대학교가 제도로써 자리를 잡으면서 핵심 교육내용을 이루었던 내용이다. 고대 그리스 이후 교양교육에 어떤 지식과 배움의 분야가 포함될 것인가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¹⁾ 하지만 대체로 교양교육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윤리학 형이상학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교양교육 위주의 대학 교육은 주로 교육의 대상을 엘리트 계층의 자제로 한정하고, 교육의 목적 역시 엘리트로서 필요한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엘리트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교육의 주된 목표였던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훔볼트 대학에서 전문적 과학의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중심 대학의 모형

1) 교양교육 분야를 구성하는 지식과 배움의 분야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는 Burke(2006: 145~195)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제시되고 이러한 대학 교육이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20세기 미국과 유럽에 확대되면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은 분리되었다. 또한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진행되면서 교양교육은 또 다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의 이른바 인문학 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에서는 여전히 엘리트 중심의 자유교육이 중요한 교육 내용을 차지하지만, 주립대학교나 대규모 사립대학교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더불어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화된 대학교육은 소규모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직이나 관리직, 사무직 등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일반교육에서는 엘리트 특권계층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보편적인 상식과 덕목을 가르쳤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양교육을 한다면 자유교육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교육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전통적인 고등교육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한학 중심의 자유교육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른바 문(文)·사(史)·철(哲) 중심의 전통적 고등교육은 선비를 양성하는 동시에 과거에 급제해 국정을 이끌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에서 고등교육은 전문가 양성 쪽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에 앞서 받는 일반적 교육으로서 그 성격이 모호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등교육의 지향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는 배경에는 앞서 논의한 자유교육에서 일반교육으로의 변화에 뒤이어 진행되는 또 다른 고등교육의 변화의 흐름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인간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상적 반복적 프로그래밍화가 가능한 활동을 대체하면서 직업세계에서 인간 능력에 대한 요구는 대면적 상호작용이나 창조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자유교육에서 강조했던 인문학적 내용들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자유교육의 내용이 재조명되는 측면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교육의 내용들이 불필요해지거나 의미가 없어진 것도 아니다. 최근 사회의 파편화와 인간관계의 유동화는 자아와 친밀성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시민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집단의 부족화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 자아를 유지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교육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결국 최근 기술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 고등교육에서 교양교육은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을 아우르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사회학의 등장 배경과 교양교육과의 관계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회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문적 탐구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학회와 학술지가 간행되고, 대학교에 사회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사회학의 고전적 저작들이 등장하여 지식인들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유럽의 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처음 등장하던 시기이다. 과거 엘리트 교육으로서 고등교육의 자유학문 분야에는 사회과학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인문학이 중심이었다가 19세기 이후 자연과학이 추가된 정도였고 사회과학은 20세기 들어서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

태였다. 반면 독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에서 대학교에 사회과학 그리고 사회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학은 이론적 추론과 경험적 조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어 갔던 자본주의 근대 사회의 본질적 특성과 그것이 낳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두 번의 세계전쟁과 전쟁 과정 및 중간에 벌어진 심각한 이념적, 인종적 갈등은 제도로서의 사회학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반면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전쟁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미국에서는 사회학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대학교에 자리를 잡고 제도화되었으며 대학교육 커리큘럼에도 포함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20세기 초반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의 계급적 분화, 대중매체와 교통, 통신의 발달, 이민의 급증에 따른 다인종 사회로의 변화의 결과 새롭게 재편된 미국 사회를 이해하고 문제에 대응하는 데 사회학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사회학은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대중화되고 발전한 것은 미국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19세기말 20세기 초반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등장을 촉발하고 신흥 학문으로서 사회학이 대답하고자 했던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0세기 중반 사회학의 지적 통합을 주도한 사회학자 Parsons는 이 질문을 홉스적 질서의 문제라고 부른다(Parsons, 1949). 토마스 홉스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국의 철학자로 17세기 중반 ‘리바이어던’에서 국가권력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무질서한 상태에 놓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양도해서 집중된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다. 그런데 홉스의 주장대로라면 질서는 강제적으로 즉 국가권력이 작용할 때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의 질서는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사회에는 자발적 질서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홉스적 질서의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 자유주의적 경제학의 입장에서 대답하고자 시도했던 것이 18세기 후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배경으로 도덕철학과 경제학을 연구한 아담 스미스였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며 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장의 질서가 유지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질서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에 의해 질서가 내재적으로 가능하다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적어도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후의 현실에 의해 반박되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자발적 질서는 종종 파괴되고 계급투쟁과 인종적 혐오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사회에서 자발적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하고자 했던 최초의 사회학자들은 우선 이러한 질서가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바뀌는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긴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정치적으로는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이 가장 극적인 변화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친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통한 급격한 산업생산의 증가와 자본주의의 확장이 핵심이었다. 근대 정치학이 새롭게 등장한 민주주의 정치의 역동적 과정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근대 경제학이 시장에서의 역동적 균형의 유지 과정을 주로 다루었다면, 새롭게 등장한 사회학은 근대 사회의 개인과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다룬 것이다.

근대 사회의 등장과 함께 이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으로서 등장한 사회학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교양교육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사회학이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성인으로서의 독립되고 자유로운 삶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지식과 역량은 다음과 같다.

- ◆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시민이자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다양한 사회와 개인으로서 본인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사회의 시민이자 성원으로서 요구와 기대를 인지하며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근대 사회에서의 삶은 한편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함에 기반한 관계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관계의 역동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모든 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도덕적 내용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동의 삶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 이러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개인은 사회에 부적응하고 심한 경우에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 ◆ 근대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구조를 이루는 거시적 질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직업인으로서의 경력을 펼쳐나갈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된다. 근대 사회는 경제, 정치, 법, 문화와 종교, 학문 등 다양한 사회적 분야들이 서로 자율적 구조와 제도의 질서를 이루고, 이들 구조와 제도들이 서로 어울려 체계를 구성한다. 각 분야의 자율적 질서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구조의 짜임새와 변동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각자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이 꿈꾸는 경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거시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진출을 할 경우에 개인은 좌절과 실패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회복력의 측면에서도 불리해진다.
- ◆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에 대한 부응,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꿈을 펼칠 기회를 찾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성찰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학적 상상력’의 발휘이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개인의 삶과 집합적 삶의 질서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인지하고 이러한 인식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물론 사회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근대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지적 역량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학과 교양교육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사회의 거시적 구조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뒤, 근대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근대 사회의 구조가 현재 급격한 기술적 변화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사회학이 교양교육으로서 고등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사회학적 상상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과 자신들의 행동을 반복되는 일상사로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일 년, 한 달, 일주일, 하루의 삶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주요 시점마다 거치는 변화, 예컨대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은퇴하는 일들을 자연스러운 인생과정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종종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거나 일상생활의 틀을 벗어나는 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자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궁금해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직장이나 집을 잃고 빚을 지거나 빈곤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경제위기가 없더라도 갑작스런 실직이나 파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다. 자녀나 본인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졸업 후의 취업이 기대대로 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뜻이 맞지 않아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할 수도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60여년이 지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휴전상태에서 전쟁 위험만 늘 있어왔지만 중동이나 동부유럽처럼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거나 난민이 되어 삶이 터전을 잃게 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불행한 사건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궁리하면서 과거에 살았던 일상적 삶을 그리워할 수 있고 현재의 상태를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일상적이고 평온한 삶과 자연스러운 인생과정이면 그것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과 변화들이건,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나 주변과 관련시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일상적 삶과 자연스런 인생과정은 자신과 주변의 노력과 호의로, 불행과 격변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운이나 다른 사람들의 악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학은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의 습성에 도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회학에서는 우리들의 일상적 삶이나 인생과정이면 그로부터 벗어난 엄청난 사건이나 변화이면 모두 사회의 거시적 구조와 결부시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부른다(Mills,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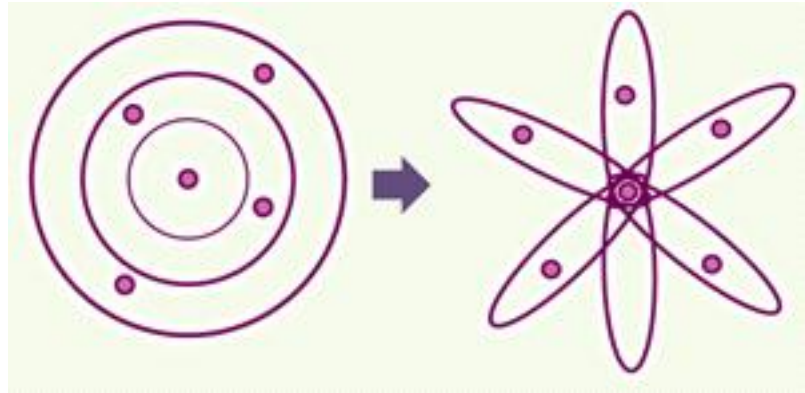
우리가 당연시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대처하기 힘들다고 넘겨버리는 것들을 인과 및 영향관계의 사슬을 추적해서 이유를 규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사건의 조리개를 이용해서 원근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넓히는 것을 반복하면서 개인의 일상적 삶과 거시적 구조와 역사가 서로 만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자동으로 손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상상력의 발휘가 필요한 것이고, 개인의 좁은 범위를 벗어난 커다란 사회와의 관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학적이라고 한다.

(1) 근대사회의 등장과 사회관계의 변화

19세기 후반 사회에서 자발적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하고자 했던 최초의 사회학자들은 우선 이러한 질서가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바뀌는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긴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정치적으로는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이 가장 극적인 변화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친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통한 급격한 산업생산의 증가와 자본주의의 확장이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비교한 아래 그림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전근대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



위의 그림에서 왼편은 전통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가운데 점은 개인을 나타낸다. 가운데의 점을 중심으로 바깥을 향해 점점 커지는 동심원들은 개인을 둘러싼 집단들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우선 가장 가까운 동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되며, 개인을 포함한 가족은 그보다 더 넓은 동심원인 이웃들에 포함되어 있다. 또 다시 개인과 가족들을 포함하는 이웃들은 가장 큰 동심원인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개인들을 중심으로 점점 큰 동심원들에 포함되는 등지를 튼 모양의(nested) 사회적 관계를 우리는 그 단명의 모양이 비슷한 양파 혹은 나이테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파 혹은 나이테 모형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갖는다.

우선 개인이 포개어진 사회적 관계들에 온전히 포함되고자 하면 이들 개개인의 활동 특히 경제적 생계활동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해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는 분업을 통한 생계활동의 다양화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업이나 수공업, 그리고 극히 소수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을 했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계활동이 더욱 단순하고 서로 비슷했을 것이다. 전통적 농촌에서의 일은 가족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 맺어질 뿐 아니라 경제적 생산의 기본단위이기도 했다. 이웃과 마을은 가족 단위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배경일 뿐 아니라 상부상조적 협동이 필요할 때 동원될 수 있는 도움의 원천이기도 했다. 게다가 더 나아가 많은 사회에서 이웃과 마을은 가까운 친척들과 같은 가까운 관계로 맺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동족부락이라는 형태로 같은 성(姓)을 지닌 집안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함께 거주를 해왔던 전통이 있다.

이처럼 포개어진 관계가 주가 되는 사회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확장되는 동심원에 속한 사람들은 오랜 동안 함께 지내왔으며 그 결과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어려서부터 이웃의 친구들이나 어른들은 각 개인과 집안에 대해 잘 알고 지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가 비슷하고 생각까지도 비슷하다. 생활에서 공유하는 바가 많다보니 정보와 사고에서도 공유하는 것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삶과 의식의 공유는 매우 강한 동류의식 혹은 집단의식을 낳게 되고 이러한 동류의식이나 집단의식은 강한 사회적 통제의 가능성을 제공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 속한 성원들이 내부적으로 강한 집단의식을 갖게 되면 집단 간에는 이러한 집단의식이 배타적인 태도를 낳는다.

그런데 전통사회라고 해서 이처럼 동질적이고 동류의식이나 집단의를 공유하는 집단들이 항상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피난을 해야 하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마을이 황폐해지거나 하면 이러한 배타적 집단은 쉽게 깨지거나 재편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양파 혹은 나이테 모양의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은 매우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그에 속한 사람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동질성을 유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사회의 마을과 같은 공동체 집단은 개인의 개성이나 혁신에 대해 보수적으로 저항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들어오는 새로운 것이나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양파 혹은 나이테 모양의 사회적 관계가 지배적인 집단은 위계적으로 더 큰 집단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계의 정점에는 정치적 군주가 존재한다. 요컨대 양파 혹은 나이테 모양의 집단은 군주제의 피라미드적 권력관계에 묶여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위계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많은 전통사회에서 나타나는 신분제의 원리이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혈통 즉 어떤 가족적 배경에 태어났는가에 따라 자신의 미래 즉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제약을 받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집단의 통제에 매인 개인이 위계적 권력관계와 신분제에 묶이다보니 개인의 권리와 자유, 자율성 등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이 집단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오른편의 그림은 이러한 지배적인 사회로부터 탈피한 개인 중심 사회의 모형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을 둘러싸고 동심원적으로 포개어졌던 관계 혹은 집단들이 서로 분리되어 일종의 선풍기 날개의 모양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선풍기 날개 모양으로 펼쳐지려면 동심원적으로 포개진 관계를 유지하던 집단의 힘을 상쇄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변화는 급격한 사회의 재편과 기존의 조직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등장에 의해 가능하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유럽의 정치혁명은 권력관계의 재편을 통해 위계적 신분제를 약화시켰던 한편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친 산업혁명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동하였고, 가족 중심 농업으로부터 벗어나 집중된 공장 조직에 편입되었다.

생산을 위한 조직들 외에도 19세기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등장해서 보다 많은 문제들을 조직들이 맡아서 해결하게 되었다. 각종 협회와 경제, 정치 조직들이 등장해서 과거에는 없었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했던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예로 공장의 등장과 함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등장해서 노사 간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근대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불리한 위치의 개인들이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새로운 조직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었다. 보다 많은 조직에 한 개인이 소속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양파처럼 완전히 포섭된 형태로부터 선풍기 날개처럼 펼쳐진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선풍기 날개 모형에서 개인의 삶을 예를 들어 보면 개인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직장에 취업해서 일하며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한다. 인생과정에 걸쳐 그리고 하루나 일주일의 일과에서도 다양한 조직들에 가입되어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과거 양파 혹은 나이테 모형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가족 혹은 이웃과 마을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이다. 과거에 대부분 마을 내부에 한정되었던 교육과 노동, 친교와 참여 등의 활동이 이제 다양한 조직들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들 조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족과 학교, 직장, 단체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겹치는 동일 인물이거나 나를 매개로 서로 알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각 조직들이 개인에 대해 갖는 영향이나 통제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개인은 각 조직들에서 한정된 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서로 다른 조직에서 만나는 상이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 개인의 통제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제 개인의 삶과 인생과정은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운명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소속된 집단이 많아지면서 이들 간에 균형을 맞추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개인에게 생겼다. 삶이 다원화되면서 개인의 자율성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에 속한 개인들은 과거 전통사회에서처럼 조직에 대한 소속이 자신의 운명이 아닌 선택이 되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이것 역시 개인의 자율성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각 개인들의 생각과 행동, 모임에서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관행이나 규칙,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말의 습관이나 공통의 단어들과 같은 것들이 발달한다. 예절이나 규범처럼 상당히 구속력이 강한 것도 있고 취향이나 습관처럼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들을 포괄해서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양파 혹은 나이테 모양의 관계에서는 문화가 대부분 마을과 지역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선풍기 날개 모양의 사회적 관계로 변화하면서 이제 문화는 각 조직이나 집단들에 특수한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보다 일반화된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 개인들이 서로 다른 집단이나 조직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과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게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에 적용될 수 있는 언어와 사고, 믿음과 행동의 일반적 규범이나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2) 근대사회로의 변화와 홉스적 질서의 문제

양파 혹은 나이테 모양의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사회로부터 선풍기 날개 모양의 관계에 기반한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사회학의 근본적 질문들 가운데 하나인 홉스적 질서의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

먼저 전통사회에서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생각해보자. 전통사회에서는 각 개인들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포괄하는 양파나 나이테의 각층에 해당되는 동심원적 집단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자신의 삶과 인생의 경로가 대부분 이 집단에 의해 정해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전근대 사회의 신분제적 제약은 이러한 집단의 통제와 함께 작용해서 개인의 선택의 여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규칙과 규범 역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개인들은 이러한 규칙과 규범에 따르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갔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생각들이 대부분 종교적 신앙과 같은 운명론을 따랐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규칙과 규범, 운명론적 사고 등은 각 집단마다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 즉 전통으로서 신성시되었던 것들이다. 신성시 된 전통의 힘이 각 개인들로 하여금 규칙과 규범, 운명론적 사고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전통이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물론 전통사회가 정체되어 있었다거나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전통사회에서도 혁신과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발전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혁신과 변화보다는 전통과 안정을 보다 많이 강조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전통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종의 제도화된 힘을 통해 집단적으로 개인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면 근대사회로 변화하면서 질서의 문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통사회에서 전통의 집단적 힘에 의해 통제를 받던 개인은 근대사회에서 자율성과 선택의 가능성을 누리게 되었다. 개인들은 정해진 운명과 같은 삶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흥미진진한 미래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삶의 경험은 개인들이 꿈꾸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예전에는 집단에서 정한 바와 전해 내려오는 것들에 따르면 되던 삶에서 선택과 자유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개인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느끼게 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것이 온전히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담 또한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들에게 자유를 만끽한다는 충족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불안정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안정감의 한 표현이 바로 자살의 증가였다.

개인 뿐 아니라 집단들 간에도 갈등과 충돌이 늘어났다. 상반되는 이해관계와 지향점, 그리고 상이한 문화와 취향을 지닌 집단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지내자니 많은 대립과 반목, 충돌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집단에 속한 사람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과 지향을 가진 사람들 간에 충돌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19세기 들어서는 이러한 갈등이 점점 확대되고 조직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각종 이익집단과 정치단체들이 대거 등장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집단적 행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직적으로 동원되기도 한 집단적 행동들이 늘어나면서 혁명이나 개혁이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게 되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종교전쟁이나 영토전쟁이 드물지 않았지만 이들 전쟁은 군주나 제후들에 의해 위로부터 동원된 전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의해서 참여하는 갈등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들은 삶의 지향점과 행동의 지침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집단들 간에는 평화를 찾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근대사회에서 흠스적 질서의 문제가 절실한 문제로 등장한 배경이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사회라고 한다면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도 사회는 있었지만 이들 사회에서 안정과 질서는 위사람들의 명령과 전통적 규범과 규칙의 통제에 의해 유지되었다. 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자리와 역할을 찾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일을 도모하고 집단적 삶을 질서있게 영위해야 할 필요가 등장했다. 어떤 학자들은 근대사회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스스로를 조직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Luhmann, 1995).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규범과 규칙을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충돌과 갈등을 줄이려면 이러한 규범과 규칙들은 다양한 집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참여해서 협의를 통해 보편, 일반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안정적이었던 전통사회와 달리 혁신과 변화가 일상화된 근대사회에서는 질서가 변화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있게 변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근대사회의 규범과 규칙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3) 흠스적 질서의 문제와 사회학적 상상력

폐쇄적이고 정체한 마을로부터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가족 단위 소농의 농업노동으로부터 가정과 분리된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노동으로 바뀌거나, 사람들의 삶과 인생이 반복되는 예측가능한 것으로부터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바뀌거나, 일상에

서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훨씬 다양해졌다는 개인 수준에서의 극적인 경험의 이면에 어떤 거시적 구조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찾아내면 근대사회에서 등장한 개인의 불안정과 집단 간의 갈등과 같은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문으로서 사회학의 출발을 함께 했던 사회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상상력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에밀 뒤르켐과 독일의 막스 베버였다. 이들 두 사람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독일의 막스 베버는 사회를 통합시키는 권력의 기초가 전통의 힘이나 개인의 카리스마적 힘이 아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 기반을 둔 권위로 변화한다는 사실과 함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절대적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합리적 이성에 대한 신뢰로 바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베버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성의 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행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으로써 사회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합리성의 원칙을 지키면 개인이나 집단들은 서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나 조정을 하기가 쉬워진다. 이때 베버가 생각했던 합리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하는 도구적 합리성과 함께 다수가 받아들인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절차적 합리성이 모두 포함된다. 합리성이 발휘된 대표적인 예가 전통을 고수하는 길드와 같은 보수적 수공업 생산에 대해 이윤을 위해 금욕하는 합리적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자본주의 생산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베버는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질서를 보다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바람직하거나 더 행복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 왜냐하면 합리성의 원칙을 따르는 개인들은 자신들의 열정이나 자발성을 ‘철의 감옥’에 가두고 타율적인 합리성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 종교적 신의 가르침을 따르던 것이 합리적 이성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바꾼 것이다. 결국 막스 베버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은 근대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관주의적 전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막스 베버가 자유로운 인간사회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취한 것에 비해 프랑스의 에밀 뒤르켐은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다. 베버가 종교적 미몽으로부터의 각성을 합리화와 연결시켰던 것과 달리 뒤르켐은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사회적 유대의 문제 특히 도덕과 규범과 관련시켜 생각했다. 산업화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에 몰리게 되면서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도 고도화되었다. 인구증가와 사회분화의 관계를 뒤르켐은 사회의 도덕적 밀도와 그에 따른 경쟁의 강화로 해석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경쟁이 심화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서로 특화되고 분화된 일들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는 점점 더 전문화된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뒤르켐은 도덕과 규범이 사람들에게 삶의 지향을 부여하고 무한한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질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종교에 기초한 기존의 도덕이 쓸모가 없어진 복잡한 세상에서 새로운 도덕이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진다는 것이 뒤르켐의 진단이었다. 이러한 아노미 상태를 벗어나려면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닌 시민들의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도덕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 에밀 뒤르켐의 흡스적 질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3. 사회구조의 이해

사회학에서는 구조(構造 structure)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구조라는 개념에 대한

명쾌하고 단순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사회학에서 구조라는 용어는 대체로 행위(行爲 action)라는 단어와 짝지어 그 반대편에서 사용된다. 행위가 사람 혹은 조직과 같은 주체가 자발적으로 또한 어떤 목적이나 효과를 얻기 위해 취하는 적극적이고 의도된 활동을 의미한다면, 구조는 사회에 안정과 질서를 부여하며,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고 지속되는, 사회의 규범적이거나 사실적인 측면들을 지칭한다. 구조는 사람과 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행위자(actor)에게 이들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행위가 구조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약하기도 한다.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언어의 사용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법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단어들을 조합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법이라는 구조는 의사소통이라는 행위를 가능케 해준다. 그런데 문법은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단어들의 조합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의사표현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들의 의사표현은 문법의 범위 안에만 한정된다. 문법이라는 구조가 의사소통이라는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조직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 위치에 걸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일을 한다. 또한 조직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들 간의 관계에 따라 상사와 부하 간에, 동료들 간에,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 간에 일하면서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이 이루어진다. 조직의 위계 혹은 수평적 구조가 그 안에 속한 성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에서 위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과 지위 걸맞은 행위만을 허용하지 그로부터 벗어날 경우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직의 구조가 성원들의 행위에 제약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에서 보는 것처럼 구조를 언어의 문법과 같은 규칙으로서 이해하건 조직에서의 지위와 같은 위치의 체계로 이해하건 구조는 행위자들에 작용해서 행위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행위를 제약한다. 구조와 행위의 이중적 관계와 역동성에 대한 이해와 안목은 사회학적 상상력의 핵심적 부분이다. 사회학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구조의 예들을 살펴보자.

(1) 역할구조

사회학에서는 역할구조(role structure)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역할이란 사람이나 조직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차지하게 되는 위치(position)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expectation)를 의미한다. 예컨대 가족에서 부부 간에는 남편과 부인의 역할이 있고, 세대 간에는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있다. 직장에서는 수직적으로 상사와 부하 간의 역할이 있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기능에 따른 역할들이 있다.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편과 부인 간의 부부 역할이 시대가 바뀌면서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한 예이다. 하지만 역할의 내용은 바뀌어도 역할 자체는 여전히 지속된다. 역할에는 친구집단에서와 같은 비공식적인 역할의 구분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와 같은 공식화된 역할의 구분도 있다. 비공식적이건 공식적이건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해 그 역할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특정한 태도나 생각,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역할 구분에서 역할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이미 주어진 위치이며 행위자들은 이러한 위치에 놓이거나 들어가게 되면서 그 역할에 대해 기대되는 활동이나 행위를 주체로서 수행하게 된다.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는 것과

흡사하다. 역할들이 서로 구분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규칙이나 짜임새는 대개의 경우 특정 사람이 그 역할을 맡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바뀌더라도 역할 자체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뀌어도 역할의 구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할의 구분과 역할들 간의 관계로서 역할구조는 앞서 구조에 대해 설명했던 내용과 특징을 지닌다.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면 해당 조직이나 사회는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그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는 혼란에 빠지거나 심하면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나 조직에서는 모든 역할에 대해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동기부여(motivation)를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규범과 지식, 경험을 갖도록 하는 사회화(socialization)를 해야 한다. 동기부여나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의 없이 하거나 더욱 심한 경우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질책이 가해지기도 하고 더욱 심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역할에 따른 기대가 잘 충족될 때 그 조직이나 사회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역할을 둘러싼 기대와 그 역할을 맡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로우 수는 없다.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람들은 대개 그 역할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 자신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역할을 맡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군대나 그 밖의 강제적 조직에서는 억지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부적응의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들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사회화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역할과 그 역할을 맡은 사람 간의 부적합으로부터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역할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서로 일치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주변의 서로 상충하는 기대들 중에서 어떤 것에 맞춰 행동해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보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기를 바라는 병원의 기대와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진료와 치료에 쏟아주기를 바라는 환자들의 기대 사이에서 의사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보다 많은 시간을 좋은 강의를 위한 준비에 들여야 한다는 요구와 보다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대와 압력을 동시에 받는 대학 교수들 역시 자신이 어떤 기대를 더 중시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역할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조직이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을 때 이러한 역할을 둘러싼 불일치와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예컨대 사회주의 하에서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이 강조되던 기업에서 탈사회주의 이후에 시장경제의 이윤원리가 강조되면 종업원들은 혼란에 빠진다. 또한 강한 가족주의 문화에서 종업원들을 가부장적 권위로 다루던 동아시아 기업 조직들에 서구적 시장가치와 문화가 들어오면 관리자들과 직원들은 낯선 공식계약과 성과주의에 적응하기 힘들다. 이러한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들이 충돌하면서 역할을 둘러싸고 상반된 기대들이 대립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양파 혹은 나이테 모형의 사회관계로부터 선풍기 날개 모양으로의 변화에서 보았듯이 근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조직들에 동시에 속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개의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거나 자녀이면서, 직장에서는 상사이거나 부하이며, 동시에 친구집단이나 친목모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일자리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도 겸직을 함으로써 이중

혹은 다중의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맡을 때 이들이 서로 독립적이거나 서로 조화롭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즉 한 역할의 수행이 다른 역할의 수행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에 자녀를 부당하게 취업을 시키는 것이 한 예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연줄주의라고 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서로 다른 역할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 조직의 효율성을 해치지만 사회적 공정성도 훼손하게 된다.

(2) 기회구조

기회구조란 사람이나 조직과 같은 행위자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differential access) 혹은 목적 달성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의 분포를 의미한다(Merton, 1995). 행위자들이 달성하기를 원하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 즉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어 있고 다양하다면 그에 따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다양할 것이다. 반면 사회적 가치가 일원화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만을 추구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한 방향으로 집중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한정된 반면 이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수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회의 대부분에서 기회구조란 희소 가치를 향한 다수 행위자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유리함과 불리함을 제공하는 조건들을 의미한다. 행동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대부분의 근대 사회에서는 희소가치를 둘러싼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지켜진다. 하지만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경쟁이 철저히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회학에서는 현실에서의 기회구조가 얼마나 공정성이라는 이상과 가까운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게 된다.

근대사회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성취가 자신이 태어난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경우가 많았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철저한 형태이건 아니면 대부분의 다른 사회처럼 어느 정도 느슨한 형태이건 신분제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혈통과 가족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인생 경로의 방향이 정해진다. 물론 신분제의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오기는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예외이지 통상적이지는 않다. 근대사회로 바뀌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신분제의 철폐가 중요했던 까닭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다. 요컨대 기회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의 변화는 기회구조가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근대사회에서 신분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개인들이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서로 경쟁할 때 경쟁의 결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 배경이 아닌 실력 혹은 업적이다. 실력주의(meritocracy)는 귀족주의(aristocracy)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제안되었다(Young, 1958). 개인이 선천적 지능과 후천적 노력의 결합에 의해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취가 결정된다고 하는 실력주의의 확산은 근대 사회에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의 증가와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대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을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교육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인정받고 보다 선망하는 직업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사실은 실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광범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실력주의가 과거에 비해 진보적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대 사회에서 교육현실을 연구한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교육이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실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졸업장이 갖는 과시효과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Collins, 1979; Spence, 1973). 특히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과 이를 위한 제한된 교육기회가 결과적으로 기회의 독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높은 직업적 성취에 필요하다고 하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얻는 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존하게 될 경우, 실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구조화된 불평등 즉 기회구조가 소수에 집중된 현실을 은폐하고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돌리도록 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위험도 있다.

실력주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구조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처럼 개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경쟁에서의 이익 혹은 불이익이 누적되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다. 과학자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좋은 업적을 낸 학자들은 명성이 높아져서 자신의 주장이나 업적을 인정받기가 더욱 용이해져서 다른 학자들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쌓고 명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고 한다(Merton, 1968).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구절에 따라 마태효과라고도 하는 이러한 이익과 불이익의 누적적 효과는 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분야들에서도 발견된다. 이 경우 기회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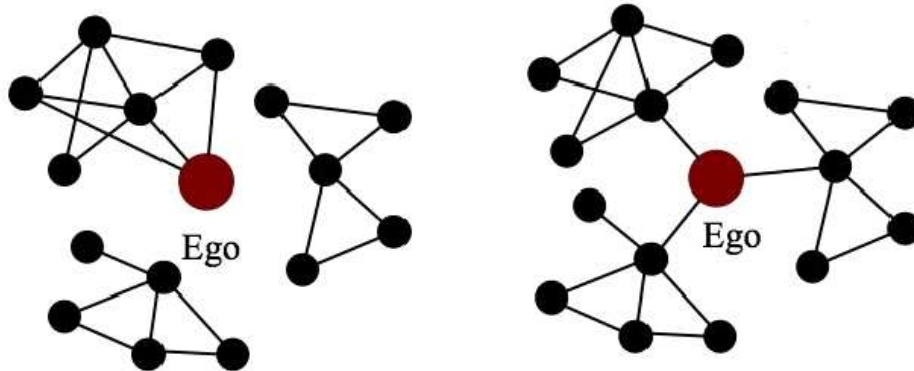
근대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사회적 특권이나 차별이 모두 없어지지 않았다. 교육을 받을 기회, 직장에 취직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 등 다양한 기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다 유리한 위치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도 한다. 연줄이나 배경에 기대어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기회를 누리는 사람들이 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의 문이 좁아지는 경우가 늘어나면 기회구조는 개방적이지 아니라 폐쇄적이 된다. 폐쇄적 기회구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때로는 불법적으로 때로는 혁신적으로—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회구조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아니면 폐쇄적인가는 사회에서 얼마나 일탈의 시도가 늘어나는가와 관련이 깊다(Merton, 1938).

기회구조는 행위자의 목적달성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암묵적 혹은 명시적 규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분포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원의 분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연결망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는 관계의 구조적 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개인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르다. 목적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을 경우 기회구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사업에 도움이 될 좋은 정보나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줄 사람이 많은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추천이나 소개를 해줄 사람이 많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관계의 대상과 수뿐만 아니라 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기회구조에서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아래의 왼쪽 그림처럼 조밀하게 짜여진 연결망에만 속한 경우에 비해 오른쪽 그림처럼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집단이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위치를 점할 경우 행위자는 목적달성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보나 도움의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에 따른 이익

(positional advantage) 중에서 이 경우와 같은 것을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의 효과라고 부른다(Burt, 1992).

그림 2. 연결망 구조에 기반한 기회구조의 이해



출처: Burt, 1992.

(3) 권력구조

사회학에서 권력이라는 용어는 자주 등장한다. 특히 사회를 집단간 혹은 개인간 갈등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갈등적 시각에서는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주된 힘이 권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권력이 사회학에서 중요한 만큼 권력에 대한 개념정의나 권력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으로 광범하게 권력의 본질을 보는 것에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그것은 정치적 권력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면 권력구조란 무엇인가? 권력이 사회에 혹은 특정한 조직에 걸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에 따라 권력의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기회구조와 유사하게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권력구조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사회학에서는 누가 왜 권력을 갖는가라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권력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혹은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이르기까지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사회구조에 대한 앞의 설명대로 권력구조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어떻게 권력이 부여되는가 뿐만 아니라 권력이 이들이 가진 권력이 어떻게 제약되는가도 규정한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바뀌면서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은 민주화되었다. 왕이나 귀족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던 시대로부터 모든 권력의 근원이 전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가진 시대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권력의 근원이 국민들 개개인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진 권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 권리를 갖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사회구조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기의 권력을 갖는다. 근대 사회에서 권력의 분포에 대한 중요한 출발점은 법과 규칙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법은 사회의 다양한 위치 예컨대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고용주와 피고용자, 공무원과 민간인 등 다양한 범주에 대해 각각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다. 조직에서도 정관과 규정에 따라 각 직급과 위치에 따른 권한이 정해져 있다. 이처럼 법과 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식화된 권력이 근대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다. 베버는 이러한 합법성이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 복종을 가져와서 권력을 권위로 바꾸게 된다고 하였다(Weber, 1978). 합법적 권력 혹은 권위는 그 권력의 행사가 법이나 규칙의 근거에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어긋날 때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공식적 권력의 구조는 이처럼 법과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근대사회에서 모든 권력이 공식적으로 법이나 규칙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비공식적인 권력의 근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칭적인 교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력이다. 사회적 관계나 과정을 교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다른 행위자에게 보다 많은 자원을 독점적으로 의존하게 될수록 상대방은 많은 권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Emerson, 1962). 다른 행위자로부터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제한될수록 그리고 본인에게 그 자원이 소중하면 할수록 그 자원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자의 권력은 더욱 커진다. 자원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될수록 그 정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갖게 된다. 자원이나 정보, 지식의 비대칭적 교환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구조는 이러한 교환관계가 어떻게 행위자들간에 구조적으로 얹히는가에 따라 만들어지고 달라진다.

교환관계로부터 발생한 권력은 후원(patronage) 관계를 통해 보다 확장되고 구조적으로 견고해진다. 후원관계는 후원자가 후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신 그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약속받는 것이다. 후원관계는 전통사회에서 발달했지만 근대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며 공식화되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다.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공식적인 권력 외에도 후원관계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경우들이 있다. 후원관계가 권력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연합(coalition) 관계는 권력을 합쳐서 더 큰 권력을 낳는 관계이다. 서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해 돕고 집합행동을 하기도 함으로써 비공식적 집단으로서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계파 혹은 파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후원관계와 연합관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비공식 집단은 친구나 동료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작은 집단에서 정부조직이나 기업조직과 같은 공식적이고 큰 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나타난다.

권력구조는 언제나 불평등을 안고 있다. 권력의 속성상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에는 권력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도전 가능성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 현실로 실현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권력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집합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것도 상황과 여건이 허락할 때에만 가능하다.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도전에 다수의 동조자들을 참여시키려면 효과적인 동원(mobilization)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전의 대상이 되는 권력구조가 취약한 상태여야 한다. 권력구조가 취약해지는 것은 권력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경제위기나 전쟁 등—이 쌓여있거나(Skocpol, 1979) 아니면 권력구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들 간에 협력이 약해지고 서로 반목과 대립이 발생할 때이다(Tilly, 1978).

4. 구조와 개인의 관계

이제까지 근대사회의 핵심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역할구조, 기회구조, 권력구조를 통해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우리 주변의 일상적 삶과 인생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살펴보았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충돌이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가에 대해 사회학적 상상력은 역할구조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다

수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서로 달려들 때에 어떻게 충돌과 갈등을 줄이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이는가를 사회학적 상상력은 기회구조로 설명한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과정이 어떻게 조정되는가, 권력을 둘러싼 게임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학적 상상력은 권력구조 개념을 제시한다.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다양한 사회 구조들이라는 것이 홉스적 질서의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답변이다. 하지만 홉스적 질서의 문제는 어떻게 질서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질서가 변화 하는가 즉 구조이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도 포함한다(Joas, 2009). 때로 구조는 외부적 영향에 의해 변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다. 서로 다른 구조들 간에도 변화의 연쇄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권력구조가 변화하면 역할구조와 기회구조가 바뀌게 된다. 권력구조가 분산적으로 변화하면 역할구조는 보다 평등해지고 기회구조는 보다 개방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만 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는 행위자들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1) 구조의 이중성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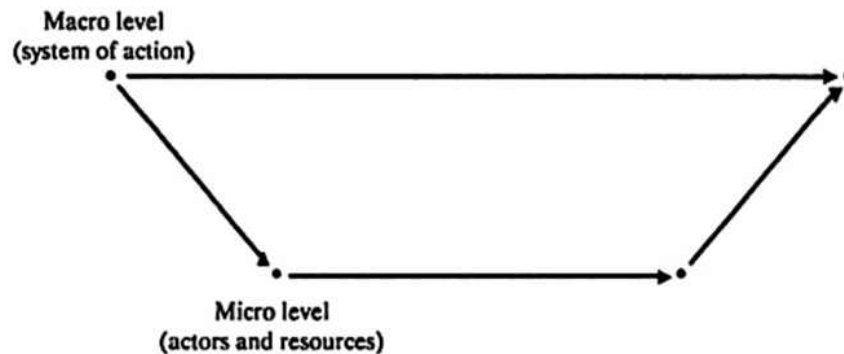
구조는 행위자들의 사고와 행동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행위자들은 구조의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역할구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고, 기회구조에 의해 주어진 가능성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권력구조에서 부여한 권력의 크기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위자들이 이처럼 구조에서 설정한 한계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구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구조에 의해 정해진 바들이 행위자들의 행위를 통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구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어(死語)와도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행위자들이 구조로부터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인 것만은 아니다. 행위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와 위치, 자신이 행하는 행위들에 대해 성찰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구조가 지시하거나 제약하는 바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더 나아가 행위자들은 현재의 구조가 대변하고 있는 이해관계나 가치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구조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거나 대변하지 못하는 이해관계나 가치를 옹호하는 행위자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키우게 된다. 요컨대 행위자들은 구조가 자신에게 부여한 대가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Joas, 1996).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조의 영향을 받은 행위자가 거꾸로 구조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쌍방향적인 관계이다. 구조와 행위자의 이러한 쌍방향적 관계를 우리는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Coleman, 1986). 이 그림에서 왼편 위의 점은 현재의 거시적 구조를 나타낸다. 현재의 구조는 왼편 아래에 있는 행위자에게 역할과 기회, 권력을 통해서 능력과 제약을 부여한다. 왼편 위의 점으로부터 왼편 아래의 점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구조가 행위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구조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제약을 갖고 행위자는 사고와 선택, 행동을 하며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그림의 왼편 아래 점으로부터 오른편 아래

점으로 향하는 화살표이다. 행위자의 사고와 선택, 행동과 상호작용의 결과는 현재의 구조로부터 부여받은 방향과 일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행위자의 사고와 행동, 상호작용은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오른쪽 아래의 점으로부터 오른쪽 위의 점을 향한 화살표는 이처럼 행위자의 사고와 선택, 행위와 상호작용이 구조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을 나타낸다.

그림 3. 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 과정 도식



출처: Coleman, 1986.

위에서 살펴본 의미로 본다면 사회학적 상상력은 행위자 개개인의 삶의 모습과 이들이 인생 과정에서 겪는 사건들을 사회 구조를 통해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경험과 성찰, 의식과 동원을 통해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의 전망을 찾는 데에서도 발휘된다고 하겠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현재의 사회 구조를 당연시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일상적 삶과 인생과정을 설명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사회구조를 문제시하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의지와 노력도 동시에 설명하기 때문에 사회학적 상상력은 구조와 행위의 쌍방향적 역동성을 포함한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상과 가치를 연구로부터 배제하고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회학 연구로부터 이상과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추방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학적 상상력에 포함된 구조와 행위의 역동성과 관련이 깊다.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구조와 개인의 관계는 상호적이고, 구조가 사회화와 통제를 통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욕구와 야망에 영향을 미치고 틀을 제공한다면, 반대로 개인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서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때로는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예로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창의적 행동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집합적 차원에서의 창의적 행동으로서 사회운동을 예로 들고자 한다.

(2) 개인의 창의적 행위의 예로서 기업가 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분석, 설명하고 어떻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할지 제안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기업가정신의 개념 규정 혹은 정의는 일반적으로 "맥락의존적이며 사회경제적 과정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조직의 창출"(Thornton, 1999)이다.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학문 분야별로 비교해 보자면 경영학이 신생 기업과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전략과 조건을 강조하고, 경제학이 그 결과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과 효과에 초점을 맞추며, 심리학은 새로운 창

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집단적 심리의 작동을 연구한다. 이에 비해 사회학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혁신적 변화를 위한 개인의 위험을 감수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을 살펴본다. 사회학에서 기업가정신은 개인과 사회, 혹은 미시와 거시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한다. 사회학이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분석과 설명의 미시/거시 수준이라는 학술적 측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개인의 성장과정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학업을 마친 젊은이는 취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꾸릴 준비를 한다. 그런데 취업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대부분 경우 젊은이들은 기존 사회 통념에 따라 이른바 잘나간다고 알려진 직업들을 얻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그중에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 보상이 보장된 전문직도 있고, 높은 수입과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대기업으로의 취직도 포함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높은 수입보다 안정성을 더욱 강조해서 공무원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들조차 중간에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이나 관청에 취업한 젊은이들은 나이를 먹고 경력을 쌓으면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려는 경쟁에 또다시 뛰어들다. 승진을 통해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업과 승진을 위한 경쟁에서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놓은 차선의 선택지를 놓고 또 노력하고 준비한다. 승진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위에서 예를 든 개인의 생애과정에 대한 서술은 사회의 기존 규칙과 제도, 통념에 순응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려 노력한 개인들의 이야기들이다. 각 개인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가족 특히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져야 할 기대와 야망, 그것을 위한 준비와 노력에 대해 배운다. 사회학에서는 이 과정을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규범과 규칙, 상식과 노하우를 익힌다는 의미에서 ‘사회화’라고 부른다. 사회화를 정상적으로 받은 개인은 사회가 차려놓은 밥상의 메뉴에서 자신의 맘에 드는 것을 고르거나 사회가 깔아놓은 궤도 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경로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은 사회로부터 자유롭다고 해도 제한된 자유를 누릴 뿐이고,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발휘할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이와 달리 개인이 가진 자유와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규범, 성공의 공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으로 새로운 혁신적 시도를 통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새롭고 혁신적이라는 것은 제조업에서 새로운 공정이나 제품을,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조직적 시도이다. 이것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사회에서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에서 기존 스타일을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 한다던지, 학문에서 기존 학설에 도전하는 새로운 학설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당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도전해서 사회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제도나 문화를 바꿀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모두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혁신 시도는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부담이 크지만 일단 성공하면 기존 사회 통념과 규범, 규칙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 변화를 가능케 한 사람은 후대에 혁신가, 선구자, 개척자 등으로 추앙받게 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사회학에서 기업가정신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조직의 창출을 통한 ‘개인’의 혁신 시도인 동시에 이를 통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이다. 혁신의 시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누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기존의 방식이나 규칙에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은 저항하고 반대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충분한 동기와 의지를 갖고 능력,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기회와 협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 그동안 던져 왔다.

- 누가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갖고 실천하는가? 그들은 어떤 내면적 조건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기업가정신을 갖고 실천하도록 하는 사회적 지위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주변인(marginal man) 혹은 사회적 아노미(anomie)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존 사회 구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개인의 야망이나 기회구조의 제약의 극복을 강조하는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다.
- 기업가 정신의 발휘와 성공의 사회적 기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시기나 시점에, 어떤 관계나 위치에서 개인들은 기업가정신을 더 잘 실천하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회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와 변동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친다. 기존의 구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경우, 권력구조나 기회구조를 통제하는 엘리트 층에서의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사회 전반의 요구와 욕구를 기존의 구조가 수용하기 어려울 때 창의적 혁신을 통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 기업가 정신의 발휘와 성공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애물의 극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업가 정신은 사회 및 경제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타성(inertia)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사회적 타성은 언제나 기득권에서 유래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상상력의 발휘나 그에 대한 공감에 어려운 경우에도 기업가 정신에 장애물이 존재한다.
- 기업가정신의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가정신을 성공적으로 발휘하면 개인이나 사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기존의 구조 속에서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던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을 집합적 차원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적 이동의 증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이동이란 기존 지위로부터 새로운 지위, 상향 혹은 하향 지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활발한 사회적 이동은 사회구조의 유연함과 기회구조의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질문들의 관계는 앞서 소개한 사회학자 콜만(James Coleman, 1988)의 도식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아래 그림은 콜만의 도식에 앞서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제기된 주요한 질문들을 연계시켜 본 것이다.

그림 4. 콜만의 미시-거시 모형으로 살펴본 기업가 정신



기업가정신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위의 질문들을 이 도식에 적용해 본다면 위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 질문은 미시적 수준의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며, 기업가정신의 기회와 장애물에 대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거시적 조건이 미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의 결과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미시적 결정과 행위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집합적 차원에서의 창의적 행위의 예로서 사회운동

기업가 정신을 통한 새로운 혁신적 조직의 등장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창의적 행위라면 집단적 차원에서의 창의적 혁신의 대표적인 예가 사회운동이다.

종종 사회운동을 기존 질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의미로만 좁혀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운동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다. 물론 기존 정치질서나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도 사회운동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신시대에 일어난 새마을 운동이다. 물론 새마을 운동은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새마을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마을 단위 혁신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른바 인류학에서 ‘빈곤의 문화’라고 부르는 체념적이고, 빈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문화에서 벗어나 혁신적 시도를 통해 개인과 가구, 마을의 삶의 수준과 질을 높이겠다는 집단적 시도로 일어난 것이 새마을 운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마을 단위에서 의식 개혁 및 자립적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공적 사례로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갖고 주목한다.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사회운동은 기존의 구조를 관습적으로 또한 명시적으로 반복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결속과 협력을 통해 기존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이다.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급속한 계급적 분화가 이루어지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에 대표적으로 사회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은 계급 기반의 혁명적 운동이었다.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본주의의 분배원리를 바꾸겠다는 시도가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급 기반의 혁명적 사회운동은 근대 사회 이전의 종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의식을 점령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전쟁을 겪고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계급 기반의 혁명적 사회운동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운동 전반이 쇠퇴하거나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20세기 중반 이후로 다양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현대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사회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서 또한 민주주의 정치의 중요한 일부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사회를 사회운동사회(social movement society)로 규정하는 사회학자들도 있다(Meyer & Tarrow, 1998).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운동이 일국적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연대를 통해 변화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사회운동사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운동을 기존의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사회운동과 비교해서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징은 기존의 사회운동이 계급적 이해와 같은 물질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키는 반면, 새로운 사회운동은 물질적 이해관계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의 실현이나 개선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운동이나 평화운동의 경우 좁은 의미에서 특정 계급집단의 이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인류 전체 혹은 더 나아가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 전체의 평화를 옹호하고자 한다. 또한 소수 인종이나 여성주의 운동 같은 정체성(identity)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경우에도 이해관계보다는 인정과 정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 가치와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에 대해 정치학자 잉글하트(Inglehart, 1997)에 따르면 계급적 기반의 혁명운동을 가치와 정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대체하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잉글하트는 두 번의 세계전쟁이 끝난 뒤인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급격한 경제발전이 힘입어 빈곤이 줄어들고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이 확대되어 인구 전반의 의식적 수준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물질적 풍요와 교육과 의식수준 제고는 결과적으로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사회, 정치적 참여 및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 즉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가치관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그 대표적인 결과의 하나가 바로 기존의 계급적 운동을 새로운 사회운동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그 배경에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혹은 무임승차의 딜레마처럼 각 개인의 입장에서 굳이 노력과 시간, 그리고 때로는 비용을 들여 집합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집합적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가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집합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를 사람들이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계급 기반의 혁명적 사회운동에서는 조합이나 정당과 같은 조직을 통한 의식화 및 규율의 적용과 집단적 감시 등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운동에서는 직접적인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적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의 실현 혹은 신장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5. 사회적 상호작용

근대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구조와 개인의 관계만 변한 것은 아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성격 또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변화의 결과 개인들 간의 관계는 혈연과 같은 연고에 기반한 관계의 비중이 줄고, 개인의 선택이나 우연에

기반한 관계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근대 이후 본격화된 도시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방인(stranger)과 우연히 만나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또한 일과 직장, 혹은 자발적 결사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적 특성보다는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나 처한 사회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미디어와 SNS 같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의 상호작용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익명적인 상호작용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를 전면적이기보다는 부분적이고, 지속적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처럼 거시적 질서의 재편에 따라 바뀐 개인간 사회적 관계의 특성과 상호작용의 방식 혹은 의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신뢰의 변모

우리는 흔히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취약해졌고 사회적 불신의 여지가 늘어났다는 말을 자주 한다.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신뢰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신뢰(信賴)라는 한자의 의미를 풀어보면 믿고(信) 힘입어 의뢰한다(賴)는 뜻이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의지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 나의 소중한 것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맡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존관계에서의 취약성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의 이해관계를 타인의 손에 맡기고 그들의 능력과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위험부담(risk)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 자주 맞닥뜨린다.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평소 아껴서 모아둔 돈을 우리는 은행에 저축으로 맡긴다. 만약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의심이 가면 우리는 돈을 맡기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는 은행을 믿지 못하고 집 뒤뜰의 향아리에 돈을 모아두는 경우도 있었다.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업의 성과가 나빠서 손해를 보지 않을지 아니면 기업의 성과보다 몸집 부풀리기를 우선시하지 않을지 우려할 수 있다. 사람들이 병이 걸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병원을 찾거나 변호사를 찾을 때 만약 나를 담당할 의사나 변호사가 전문적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되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나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누설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면 의사나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것이다.

신뢰에서 또 하나의 상황은 의존관계에서 발생하는 취약성과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의 작동 덕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하고 우리의 소중한 이해관계를 맡긴다는 것이다.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은 정부의 규제와 보장, 시장에서의 정보의 공개, 전문가 집단의 집단적 통제, 그리고 개인적 연출 등 다양하다.

앞의 예들을 다시 살펴보자. 옛날에는 은행이 망하면 자신이 맡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우려에서 돈을 향아리에 모아두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예금자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같은 보험 장치들이 있어서 은행에 안심하고 돈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정부의 규제와 보장을 통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이다.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기업관련 결정이나 변화를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의존해서 의심이 가면 언제라도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살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정보공개를 통해서 신뢰가 해결된 경우이다.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 정부에서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 활동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와 같은 전문가단체에서는 윤리강령 등을 통해서 의뢰인의 정보를 절대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통제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의사나 변호사에 대해 미덥지 못할 경우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믿을만한 의사나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집단의 집단적 통제와 개인적인 연줄을 통해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는 신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념적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신뢰의 일반적 정의는 “나의 행복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일반화된 주관적 기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 및 측면이 되는 이유는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 간의 협동을 조장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제도의 질이라고 할 때, 사회적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들 간에 협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 간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를 서로 의존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신뢰의 문제가 비롯되고, 또한 다양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에, 신뢰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과학의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신뢰라는 단어에서 윤리와 도덕의 측면만을 보려하고 그럼으로써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이해관계의 계산과 그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에서 신뢰를 연구한 젊은 사회학자의 논문 발표를 들은 어느 원로 학자는 “합리성이라는 말로 신뢰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그 원로 학자께서는 아마도 합리성이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왜곡된 인간성을 대변하는 반면, 신뢰는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포용하고 도와주는 이타적인 되찾아야 할 본래의 인간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분이 생각한 신뢰는 도덕성과 윤리라는 문제로 협소하게 정의된 인격적 차원의 신뢰이다. 신뢰를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남을 우선 믿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훌륭한 믿음이고, 한 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대라는 성경의 말씀과 유사해진다.

신뢰는 단지 개개인의 인격과 윤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훌륭한 인격과 높은 윤리를 갖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신뢰하는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이 신뢰를 인격과 윤리의 문제로 보는 입장이라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면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격과 윤리도 훌륭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신뢰를 사회과학의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입장은 서로 대립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다.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할 경우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업상 크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을 도모해야 하고 또한 협동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때 신뢰는 계산적 신뢰의 성격이 강하며 또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담보적 요소를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적 자본의 기초로서 신뢰는 이러한 담보적 요소를 줄이고 사람들 간에 원활유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는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반화된 신뢰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나 조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즉 연고관계나 사업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 관계의 사람에 대한 신뢰는 사적 신뢰 혹은 좁은 신뢰

라고 할 수 있다. 일반화된 신뢰는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화된 신뢰는 사회적 자본에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화된 신뢰가 사회적 관계의 질을 반영하고 규정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제도의 질을 반영하고 규정한다. 사회적 제도와 기관은 사람들에게 외재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제도와 기관은 시장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반영하여 다수 고객이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야 하고 또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제도와 기관들은 이를 운영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국민이나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제도와 기관이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될 경우 그 고객과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신뢰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제도의 질을 반영한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에 대한 신뢰는 거꾸로 제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유지되려면 기능적, 기술적 합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동시에 제도가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이 필요하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사회적 제도와 기관의 정당성은 국민이나 고객들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민과 고객들이 신뢰하는 기관은 정당성을 누리고 제도의 운영 역시 원활하게 잘 될 것이다.

(2)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에 대한 요구와 규칙을 받아들이고 복종하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요구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이들이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다른 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하며 어떤 결과를 얻는가에 대해 사회학의 다양한 이론들은 자신의 이론적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측면들에 주목해 왔다.

먼저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의 종류들을 살펴보자. 수평적이며 상호적인 인간관계로서 친교(friendship)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들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친분 관계를 맺는다. 현대 사회의 많은 관계가 계약적이고 공식적이라면, 친교집단에서의 관계는 비공식적이고 정서적이다.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위축될 때 서로 격려하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가 발전한다. 친교관계를 맺는 상대의 선택 과정에서는 유유상종(homophily)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구성에서 여성이 소수인 조직에서 여성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고향이 같거나 같은 학교 동문인 사람들끼리 강력한 비공식 집단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유유상종에 의해 형성된 비공식 집단이 조직 내에서 공식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친교집단과 구별되는 관계로서 사회적 교환관계도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도움을 주고 받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이다. 도움과 정보의 교환은 친분 관계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그라노베터가 약한 연계의 강점(strength of weak tie)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자주 만나는 가까운 사람보다 가끔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더 유용한 도움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73). 친교관계가 상호적이라면 도움이나 정보를 얻는 관계는 일방적이고 비대칭적 관계이다. 선의나 도움에 대해 호혜성(reciprocity)의 규범이 일반화된 인간관계에서(Gouldner, 1960) 호의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호의를 되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만약 호의가 서로 오가면서 관계가 지속되면 이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만약 호의를 받고 이를 되갚지 못하면 호의를 받은 사람은 이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의 뜻에서 존경이나 존중의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이를 통해 비공식적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조직 안에서 도움이나 조언의 교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블라우가 처음 시작했다(Blau, 1955). 블라우는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조직이 공식적으로 업무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권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광범하게 조언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조언과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교환은 가격과 같은 거래조건이 분명하지 않고, 호의를 받는 것과 그에 대한 보상 간에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계약에 의존하는 경제적 교환과 다르다. 경제적 교환과 달리 사회적 교환은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신뢰 혹은 권력의 사회적 구조를 낳게 된다고 블라우는 주장했다.

친교 관계와 교환 관계가 결합하면 후원 관계(patronage)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친교 및 교환 관계가 수평적이라면 후원 관계는 수직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교환 관계는 호의와 도움을 주고 받는 수평적 관계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후원 관계는 시작부터 한편에서는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댓가로 충성을 바치는 수직적 관계로 출발한다. 후원 관계는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관계가 공식적 위계와 달리 비공식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상사와 부하, 같은 학교 출신의 동문 선배와 후배 간에 이처럼 혜택과 충성의 후원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때로 비공식적 후원관계가 공식적 위계를 장악하거나, 공식적 위계의 수뇌부가 비공식적 후원관계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가 조직의 위계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집단은 파워 엘리트(Mills, 1956) 혹은 핵심 지배층(Useem, 1984)으로 불린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혈연이나 학연과 같은 연고적 관계로 뭉친 집단이 조직의 수뇌부를 장악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도 하다.

그러면 이러한 친교, 교환, 후원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는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상징적 상호작용에 주목해서 이를 통한 의미와 제도적 질서의 등장에 관심을 가졌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향적(bottom-up)으로 암묵적 규범과 문화적 규칙을 만들어내는가를 연구했다. 이들은 의미, 문화, 제도가 위로부터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해석과 공유, 갈등과 교섭을 거치면서 정착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교섭된 질서(negotiated order)라고 불렀다. 분명한 논리적 배경과 근거를 갖고 부여되는 공식적 규칙과 달리 이러한 비공식적 질서는 단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비공식적 규범과 질서는 공식적 규칙과 별도로 혹은 대립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며 함께 작용한다. 공식적 규칙을 일부 지키지 않고 비공식적 규범에 따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행위자들이 암묵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와 환자들 간에 형성되는 관계와 문화(Strauss, Fagerhaugh, Wiener, 1977),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만들어지는 비공식적 하위문화(Becker, 1961), 예술계에서 예술가들과 조력자들 사이에서 예술을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관행(Becker, 1984),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문적 지식에 대해 함께 만들어내는 합의적 체계(Abbott, 1988)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적 행위자들은 함께 상호작용하며 의미의 생성과 공유를 통해 비공식 규범과 질서를 낳기도 하지만, 고프만(Goffman)의 연극적 사회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역할과 위치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조금씩 다른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며 기대에 맞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자 (self-presentation) 노력한다(Goffman, 1959). 요컨대 사회적 행위자들은 상대에 따라 가면을 바꾸어 쓰면서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위해 자신이 맡은 배역을 최선을 다해 연기한다. 분명 이러한 인상 관리는 사람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일부이며, 인상 관리의 목적은 상대방의 호감 혹은 인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수직적 위계의 관계에서윗사람에게 능력있고 성실하다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반대로 윗사람들 역시 아랫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듯이 보임으로써 체면을 살리고자 한다.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 간에도 서로 신뢰할만하고 호감을 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상당히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서로 편하고 친밀성이 넘치는 관계가 아닌 이방인과 우연히 혹은 전략적 목적을 지닌 인간관계는 서로 신경쓰는 긴장이 지속되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일상화된다.

인상 관리는 고프만이 지적한대로 특정한 상황에서 더 중요해진다(Giacalone & Rosenfeld, 1989). 예컨대 사회집단에의 참여를 위한 면접이나 구성원이 되어 처음 들어올 때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자신의 평판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 인상 관리는 더욱 중요해진다(Elsbach & Sutton, 1992). 자신의 지위나 신뢰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앞둔 경우나 규칙 위반을 들키지 않으려 할 때 인상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자신이 마주한 사람들 중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관객이 함께 섞여 있을 때에 인상 관리는 더욱 힘들어진다. 예컨대 중간 관리자가 자신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 아랫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는 인상과 윗사람에게 주려는 인상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객에 대한 인상 에 집중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종류의 관객을 배제함으로써 관객 분리(audience segregation)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행위자로서 인간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 역시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역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Garfinkel, 1967). 특히 민속방법론을 처음 제안한 가핑클(Garfinkel)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참여하는 각자의 정체성, 상호작용과 소통의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틀, 상호작용과 소통의 지향점과 목적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인지의 기초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점점 합리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행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파격적이다. 하지만 철학적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가핑클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협력할 때 자신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서로 충분한 이해와 행동의 조율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상호이해와 조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강조한다(Rawls, 2008). 재판에서 평결을 내리기 위해 함께 숙의를 진행하는 배심원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한 가핑클은 배심원들이 맡은 사건에 대한 이해와 증거의 평가 등에서 미리 주어진 정보보다 서로의 분류와 판단, 의견 교환과 상호이해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Garfinkel, 1967).

민속방법론의 논리와 주장이 사회집단이나 조직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집단이나 조직에서 의사결정과 행위의 지향점이 되는 목적이 종종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핑클은 사람들의 행동에서 목적은 때로는 행위에 앞서 정해지고 행위의 지향점이 되어 내내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행위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가핑클의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은 마치(March, 1994, 2006)는 조직에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짜여진 목적과 수단의 선택의 틀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일단 결정과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그 의미의 부여와 목적 제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직에서 문제는 기능적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까에 대한 불확실성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모호성(ambiguity)도 있다. 특히 마치와 동료들의 연구를 통해 합리성을 강조하는 지식의 생산과 전수가 일어나는 대학교(Cohen, March & Olsen, 1972, March & Olsen, 1976)에서의 의사결정과 조정과정에 대한 연구, 가장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엄격한 운영과 관리가 요구되는 군대에서의 상호작용(March & Weissinger-Baylon, 1986)에서도 이러한 모호성이 항상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역시 가핑클의 영향을 받은 라투어(Latour)는 매우 복잡하고 체계적이며 통제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학 실험실에서도 어떤 실험 자료에 주목하고 이론 검증에 이용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과학 연구 또한 목적을 향한 체계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동료들 간의 모색과 합의의 지속적인 과정임을 주장하였다(Latour & Woolgar, 1979). 이러한 다양한 민속방법론의 주장을 종합하여 마치는 의사결정 과정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보다는 거꾸로 다양한 해결책들에서 출발해서 이들이 적용될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Cohen, March & Olsen, 1972).

6. 구조의 변동과 사회의 발전

근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구조가 사회에서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최근 들어 이러한 사회구조들은 그 효과가 약해지거나 보편성이 줄어들거나 유연해지는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규칙들의 적용범위가 줄어들기도 하고, 역할들이 중첩되거나 계속 변화하기도 하고, 관계들이 끊임없이 바뀌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사회구조가 지닌 지속성, 안정성, 규칙성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를 약화시키거나 유연하게 만드는 변화의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구조의 등장을 가져왔던 선봉기 날개 모형의 근대사회가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모형에 의해 대체되는 변화가 있다.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등장한 홉스적 자발적 질서의 문제를 사회 구조와 개인 행위의 역동성을 통해 해결한 사회학의 해법이 새로운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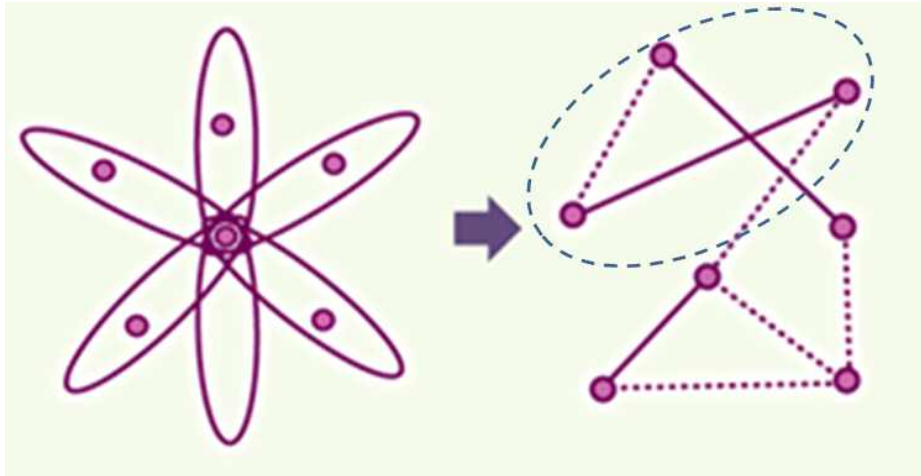
(1) 근대사회로부터 네트워크사회로의 변화

아래 그림은 근대사회로부터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근대사회를 보여주는 원편 그림에서 선봉기 날개 각각이 개인이 속한 다양한 조직들을 나타낸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그런데 오른편 그림에 표현된 새로운 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이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조직들의 영향력이나 지속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약화된 조직들 대신에 새로운 사회에서는 개인들을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근대사회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우리는 네트워크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근대사회에서 개인은 조직과 일생동안 지속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사람의 삶에 다양성과 변화 속에 안정을 주는 역할을 했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정한 용도로 만들고 그 용도가 없어지면 없애버리는 일회용(disposable) 조직(March, 1995)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과거에 조직들이 지니고 있던 신뢰성과 책임성(Hannan and Freeman, 1989)이 약해졌다. 조직의 평균 수명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그 특성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재편 혹은 처분되는 레고형 조직으로 변모한 것이다.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도 매

우 단기적이고 불확실해졌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 인력을 대량으로 고용할 뿐 아니라 능력있는 개인들도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간 이동을 자주하다보니 경계가 없는 경력(boundaryless career)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가 되었다. 그 결과 이제 조직은 더 이상 근대사회에서와 같이 삶의 안정성과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림 5. 근대 사회로부터 네트워크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관계의 변화



왼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을 매개로 맺어진 관계들을 대신해서 오른편 그림에 표현된 네트워크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다양하게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손쉬워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의 관계맺기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확장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확장된 관계의 표현으로서 그림에서는 실선과 점선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활동적(active)인 관계와 잠재적(inactive)인 관계를 의미한다. 근대사회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의 표준화된 생애과정의 단계별로 거쳐 가는 일직선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 다중 프로젝트의 중첩된 연속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의 순서가 뒤엉킬 뿐 아니라 경험하는 연령도 다양해지면서 생애과정이 사람마다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들 각각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들과의 관계는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활동적이고 이후에는 잠재적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는 강한 관계보다는 약한 관계(weak tie)를 특징으로 갖는다(Granovetter, 1973). 약한 관계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개인들은 진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보다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얼굴들(faces)을 바꿔가며 대하는 가식적 삶에 익숙해지게 된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개인들이 누리게 되었던 자유와 자율성이 이제는 더욱 극단화되어 주체로서 개인의 정체성이 다중화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근대사회에서 자유가 개인들이 전통사회의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결과로 얻은 전리품이었다면, 새로운 사회에서 자유는 자기 삶의 닳을 내리기 힘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버티고 설 기반(footing)을 찾도록 만드는 실존적 조건이 되었다.

아직 이러한 변화는 완결되지는 않았고 부분적으로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유동적

이고 약한 관계가 지배적이 된 사회에서 과거의 장기적 관계에 기반 한 사회의 덕목이었던 정직과 신뢰, 근면과 성실, 진정성 등이 더 이상 덕목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Sennet, 1998). 사회적 관계가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져서 삶의 원리 자체도 불확실성과 유연성을 강조하게 된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의 특성은 흡사 액체(liquid)와도 같다(Bauman, 2013). 근대사회가 고체처럼 일정한 틀 즉 구조를 지닌 조직들에 의해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었다면, 네트워크사회는 액체처럼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흘러다니면서 어떤 용기에 담기는가에 따라 모양이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이다.

(2) 사적영역의 양면성

네트워크사회로 바뀌면서 근대사회에서 만들어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경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는 미디어의 기술적 변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질서 재편성이다. 사회적 테크놀로지로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 및 경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공간을 예로 들어보자.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보편적이다. 온라인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은 현실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거의 제약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잠재적으로 열려진 ‘공적인’ 공간에 도달하면, 그 안에서 개인의 ‘사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상당히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부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 및 경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사회에서 개인성과 집합성, 사적인 것과 공적인 관계 간의 균형성이 깨지면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 안에만 파묻힌 채 공적인 것으로부터 단절된 개인은 소외감을 느낄 것이지만, 반대로 타인의 개인적 영역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침투해 들어간다면 상대방의 사적 공간이 파괴될 뿐 아니라 공공 세계의 질서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문제는 사적·공적 영역의 경계가 오해 혹은 오용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경우, 이것은 주관적인 사적·공적 영역 구분이 사회적인 사적·공적 영역 구분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더불어 개인들 간에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사적·공적 경계가 서로 달라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예컨대 “내가 내 집에서 내 일하는 데 네가 무슨 상관이나냐”라는 주장과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세상이나냐”라는 식의 다툼은 개인들이 자기 사적 영역 및 서로가 공유하는 공적 영역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프라이버시를 타자에 대해 보호되어야 할 무엇이라고 상정한다. 달리 말한다면 프라이버시를 방어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 익숙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런 관점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를 발견한다. 개인 간의 관계 맺기를 예로 들어보자. 개인이 자기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의사소통의 시발점이고 진실성 있는 자기노출을 통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 맺기의 기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가에 있다. 그러나 자기노출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법이다. 자기노출은 항상 호혜적으로 일어난다.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어느 정도의 자기노출을 할 것인가를 규정할 뿐 아니라 먼저 자기 노출을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규정되고 달라지는 것이다. 관계 맺기를 위해 프라이버시는 전략적으로 조작된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개인과 일반화된 타자 간의 관계서도 프라이버시는 일방

적 보호의 대상만은 아니다. 오히려 대리 보호의 대상, 즉 무언가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거리와 상점의 CCTV는 잠재적으로 상존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결과 주어진 산물이다. 24시간 상존적인 노출의 상황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스타 시스템에서 스타의 프라이버시는 침범당하기 일쑤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스타의 가치는 비밀스러운 프라이버시를 구축한 후 그 비밀을 상품화하는 논리에 있다.

(3) 정체성의 부상

근대사회에서 개인은 유년기에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아(self)를 형성하게 된다. 자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의 기대 즉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이다(Mead, 1934). 일반화된 타자의 입장이나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곧 사회화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회적 자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자아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며 자신이 맡게 되는 역할에 맞게 자신을 변형시켜 간다. 이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 즉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를 계속 유지해가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신적 상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 이미지는 이후 삶과 인생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네트워크사회에서는 살면서 관계를 맺고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이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사람들은 관계를 새로 맺고 이전의 관계를 끝낸다.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결국 안정적이고 일관된 자아의 이미지에 대한 필요도 줄어들고 유지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네트워크사회에서의 관계 맺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 얼마나 비슷한가 아니면 얼마나 일관적인가가 아니라 남들과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이전과 다르더라도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가이다.

정체성(identity)은 바로 이처럼 남들과의 동일성보다는 남과 다른 차별성에 기반을 둔다. 남들과의 구별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남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동화되기를 바라는 근대적 자아는 이제 물러가고 남들과의 차별화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강한 인상(impression)을 심고자 하는 정체성이 부상한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차별화의 기준은 성별이나 인종 등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일 경우도 있고, 취향이나 지향처럼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일 경우도 있다.

네트워크사회에서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또 다른 배경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결과로 이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및 접촉이 더욱 쉬워지고 잦아졌다는 사실이다. 글로벌화의 결과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졌을 뿐 아니라 인구이동 역시 매우 활발해졌다. 20세기말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념의 장애물이 없어진 것도 이동을 더욱 촉진한 요인이 되었다. 20세기 전반기까지 주로 유럽대륙 내부 및 유럽대륙과 아메리카대륙 간에 인구이동이 활발했다면 20세기 후반 식민지들의 해방 이후에는 이들 나라와 선진 유럽과 미국 간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졌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전 세계에 걸쳐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할 정도로 인구구성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찾는 이민노동

자들 뿐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 역시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된 것이다.

글로벌화에 따른 인구이동이 현실에서의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증가시켰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통한 이국적 문화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켰다. 인터넷을 통해서 관심있는 외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예술과 문화를 즐기게 된 상황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빠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한국의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및 한국인들과의 직접적 만남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높아지는 만큼, 한국인들 역시 해외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여행의 기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도 높아졌다. 과거에는 해외 유학이나 파견 근무 등 제한된 기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외국의 문화가 이제는 누구나 마음 먹기에 따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구이동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 및 교류와 인터넷을 통한 문화적 경험의 다양화는 서로 다른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높였다. 정체성의 부상은 개인간 관계 맺기에서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인 동시에 변화된 환경과 다양해진 경험이 가져온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4) 유목적 삶과 사회운동 사회의 등장

네트워크사회에서는 위에 본 바와 같이 국제적 인구이동도 활발하지만 국내에서 일자리 이동도 활발하다. 직장을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나간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하는 현실의 배경에는 조직들이 혁신과 재편을 거듭할 뿐 아니라 조직들 자체의 흥망성쇠 또한 역동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은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근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굳건한 조직들이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인 유연한 네트워크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네트워크는 고정되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네트워크이다.

조직과 네트워크의 엇갈린 운명을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근대사회에서의 조직과 개인간의 비대칭성(Coleman, 1982)이 정보의 네트워크에 의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근대사회에서 조직에 비해 개인이 열세에 놓이게 된 중요한 이유는 조직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이 개인들의 역량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개인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동의나 후원을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엄청난 동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Sirkey, 2008). 굳이 만드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조직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들이 동의와 후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물론 모든 개인들이 원하대로 동의와 후원이 언제나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변화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는 정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개인들이 자신의 정당성과 주장을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Inglehart, 1990)으로 서구의 많은 사회에서는 근대 사회에서의 질서와 안정에 대한 일방적 강조에서 벗어나 개인들의 다양성과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탈물질주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과거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시민적 권익과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과 물질적 이해관계로 얽히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라도 동의한다면 기꺼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려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새로운 동원의 가능성을 과거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동원과 구분하여 인지적 동원이라고 부른다(Inglehart, 1990). 인지적 동원을 통해서 활성화된 새로운 사회운동은 경제성장에 의해 위협받는 환경, 소수자에 대한 관용,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의 확대를 주장하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5) 네트워크사회에서의 사회학적 상상력

네트워크사회로의 변화는 근대사회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의 중요한 근원이 되었던 구조와 행위의 역동성을 이제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보아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네트워크사회는 안정적 구조를 해체하고 이를 역동적 네트워크로 대체하고 있다. 구조가 근대사회에 부여했던 안정성 대신에 이제는 끊임없이 바뀌고 재편되는 네트워크의 역동성이 행위자들의 삶의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들의 삶과 인생은 한편에서는 희망과 가능성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에 개인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불확실하고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은 거시적 맥락이나 장기적 전망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개인들의 삶의 범위와 영역은 한편으로는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욱 축소되고 왜소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실제로 네트워크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의 포함한 많은 사회들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위협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든지 하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고립된 개인은 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과거에 개인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했던 신이라는 존재가 힘을 잃고 그 대신에 사회의 구조라는 것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근대사회에서 삶에 안정과 질서를 주었던 구조들이 약해지고 네트워크사회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근대사회가 가져다준 자유를 즐기면서도 구조에 의해 질서와 안정을 보장받았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네트워크의 역동성이 가져온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대안적 질서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21세기의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사회학에 요구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변화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질서의 가능성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근대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결합의 가능성에 눈뜨게 해주는 상상력일 것이다.

참고문헌

- Bauman, Z. 2013. *Liquid modernity*. John Wiley & Sons.
-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1982. *The asymmetric society*. Syracuse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1986.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09-1335.
-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An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Emerson, R. M. 1962. "Power-dependence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1-41.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60-1380.
- Hannan, M. T., & Freeman, J. 1989. *Organizational ec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as, H. 1996. *The creativity of a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as, H., and Knöbl, W. 2009. *Social theory: twenty introductory lec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hmann, N. 1995. *Social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ch, J. G. 1995. "The future, disposable organizations and the rigidities of imagination." *Organization*, 2(3-4), 427-440.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 Merton, R. K. 1968. "The Matthew effect in science." *Science*, 159, 56-63.
- Merton, R. K. 1995. "Opportunity structure: The emergence, diffusion, and differentiation of a sociological concept, 1930s-1950s". *The legacy of anomie theory*.
- Mills, C. W. 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Parsons, T. 1949.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Free Press.
- Richard, S. 1998. *The Corrosion of Character: the personal consequences of work in the new capitalism*. Norton.
- Shirky, C. 2008.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Penguin.
- Skocpol, T.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nce, M. 1973.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355-374.
- Tilly, C.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New York: McGraw-Hill.
- Weber, M. 197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Univ of California Press.
- Young, M. D. 1958. *The rise of the meritocracy*. Transaction Publishers.

[발표 V]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족학

| 김성희 박사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족학

김성희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1. 들어가는 말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개인에게는 생활환경과 같이 근접한 환경이며,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집단 체계로 간주된다. 가족 내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정서적 안정과 같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모여 육체적, 정신적 공감을 나누는 집단이라 간주됨과 동시에, 다세대에 걸쳐 연결된다는 점에서 세대에 걸쳐 고유한 가족 문화와 가족 규범, 역할, 권위 구조, 의사소통 유형, 협력 과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 단위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그 가족 구성원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효율적으로 생활을 수행하는 자연스러운 사회 체계이다. 이러한 가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가족학에서는 개인과 가족 삶의 과정과 다양한 맥락에서 가족 내 역동과 함께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사회와의 상호연결성에 대해 살펴본다. 즉, 가족학에서는 커플, 부모, 자녀, 형제, 친족 등 다양하게 형성된 관계에 대하여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다루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및 집단으로서의 가족과 사회와의 상호영향에 대해 다룬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으로서의 가족학이 대학 교양교육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전무하다. 더 붙여 근본적으로 왜 가족학을 교양으로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 교과 과정에서 가족학 전공 학생들은 가족학개론 과목을 통하여 가족과 이를 둘러싼 사회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하며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가족학 비전공학생들이 주가 되는 교양교육에서는 가족학개론 과목에서 다루는 의의와 내용, 그리고 접근 방법이 상이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과연 교양교육과 가족학이 연결되는 지점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교양교육으로서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교양교육의 흐름과 강조점

그렇다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과연 학문으로서의 가족학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교양교육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¹⁾. 교양교육은 그 내용과 강조점을 바탕으로 자유 교육(liberal education)과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으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이 둘의 구분 없이

1) 교양교육의 역사 및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의 두 저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손승남(2011).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교육과학사.
신득렬(2016). 교양교육. 겨리.

교양교육이라 칭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선 역사적으로 그리스의 교양교육은 Paideia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자유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 정치학 등의 학문이 탄생함에 따라 자유 교육(liberal education) 혹은 자유 학예 교육(liberal arts education)이라 언급되어 왔다. 소피스트 학원을 바탕으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Socrates, Plato, Aristotle가 주장하는 지혜와 덕성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졌다. 중세 시대에는 대학의 출현과 함께 3학(trivium)인 문법, 수사학, 논리학 또는 변증법에 더하여 4과(quadrivium)인 대수, 기하, 음악, 천문학이 추가됨에 따라 7가지 자유교과를 다루고자 하였다. 자유교과는 전공학부인 신학, 의학, 법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소양 측면에서 교양이 강조되었다. 현대에는 교양의 원어로 Humboldt가 제안한 Bildung이라는 개념이 있다. Bildung은 전인적인 교육에 주목하여 인간은 내적인 힘을 통하여 스스로 교육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Humboldt의 교육사상은 인간성의 완성과 조화로운 인간상 발달을 주장하며,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여 인간성 이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근대 초기까지 교양교육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자유 교육(liberal education)이라 할 수 있다. 자유 교육이란 교양교육의 고전적 전형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칭하며, 자율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능동적이며 주체적 인격의 도야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와 반대로 근대 시민혁명 이후 광범위한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는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등이 포함되게 된다. 즉, 일반 교육이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하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현대 한국 사회에 대입하여 볼 때, 전문 지식인 양성으로서의 측면이 대두되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전공지식 이전에 이루어지는 일반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Bildung의 개념을 현대 사회에 대조하여 해석해보면, Bildung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판적 자세와 비판 능력, 논증적 자세와 논증 능력, 공감 능력, 통합적 사고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이며, 대학 교과 과정에서도 강조되는 중요 핵심 영역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2) 교양교육과 가족학의 연결점

가족학²⁾은 가족 내부에 대한 관계의 역동에 초점을 맞춘 개인의 발달 관점에서 살펴보는 미시적 접근이 있는 반면, 사회적 관점에서 가족의 형태와 구조, 제도, 그리고 가족과 사회와의 상호영향을 살펴보는 거시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가족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계기는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 구조가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에서 2세대 이하의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시점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군인 가족이 등장함에 따라 가족 내 역할 변화를 통한 역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지며 이는 가족의 형태와 구조를 변화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개인을 둘러싼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이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서 군인 가족의 증가는 가족 내 부양자 역할을 담당해왔던 남편이 전쟁터로 나감에 따라 가사 노동을 전담하였던 부인에게 이전의 가사 내 돌봄 역할과 함께 경제적 부양자 역할까지 부과되는 역할 과중 및 가족 내 체계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전쟁터로 나갔던 남편이 전쟁

2) 가족학의 역사 및 개념에 대해서는 Murji 외(2022: 241-340)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후 가족 내로 다시 돌아옴에 따라 가족 내에서는 부양자와 가족 돌봄 역할을 모두 하였던 아내의 역할이 변화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재하였던 아버지가 가족으로 돌아옴에 따라 가족 내 역할 및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징을 지닌 가족은 가족의 역할 및 관계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 가족의 건강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가족 내 스트레스 상황은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하고 있는 개인들이 사회에 나가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스트레스로까지 확산되며 사회 현상을 야기한다.

가족 내 관계에 초점을 둔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때, 가족학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핵가족이 진행됨에 따라 근대 이후 사회에서 가족에 포함되는 가족의 수는 10명 이하의 적은 수이지만 그 가족 간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일정한 지위와 질서가 있고 그 지위에 맞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과 같이, 가족 내에서도 지위와 역할이 부여된다. 즉, 결혼을 통하여 남편 혹은 아내의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녀 또한 딸 혹은 아들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자매에 대해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학은 미시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를 보다 과학적,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거시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가족의 형태와 규모,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 제도 등과 같은 정책,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학자들은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분석할 때, 가족이 성장한 환경과 생활 조건, 속해 있는 문화, 개인별 인간성의 차이에 대하여 고려한다. 특히나 현대 사회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국가 간 연결되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영향이 증폭되며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가족이 처한 각 문화적 측면과 함께 시대적 영향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 가족 내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내 관계 혹은 사회와의 연결을 통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적용과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가족 내 개인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위의 집합체가 어떠한 사회 현상을 나타내며, 사회 구조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가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가족학 관점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회적 이슈로, 그 원인 중 하나로 비혼 및 만혼화 현상이 대두된다.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일컫는 MZ 세대의 출현과 함께 이들 개인적 특성과 사회 구조적 특성의 조합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현상들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시적 측면에서는 사회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미시적 측면에서는 사람들 간의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관계 형성 및 가족 내 역할 변화에 대한 역동을 살펴보거나 사회 및 가족 관련 규범 변화를 언급하는 접근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족 관련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 중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내재화된 규범 중 하나는 "자녀를 낳으려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규범이 있다. 이러한 규범이 체화된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세트로 연결지어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영향으로 인하여 만혼화나 비혼화와 같은 결혼의 행동에 있어 변화가 야기되며, 이는 다시 저출산과 연결되

는 사회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시적인 사회 현상과 함께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같은 가족 형성을 둘러싼 변화는 개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취업 여성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 비정규직의 증가, 양극화 및 빈곤의 심화와 같은 가족을 둘러싼 변화가 야기된다. 이 중 사회 구조적 문제는 젠더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불평등 현상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곤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가족학 관련 전공자뿐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 및 개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경험을 통하여 익숙한 현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간접적 혹은 비간접적으로 이들 현상에 개입되어 그 영향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예컨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가족 내 부양 이슈는 핵가족화 된 현대 사회에서 노인 부양자의 감소 현상을 일으키며 가족 내 부양에서 부양의 사회화라는 기조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에서는 가족 부양과 사회 부양 간의 갈등이 나타나며, 이는 사회 구조가 뒷받침 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청년층과 이들의 부모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전공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가족 환경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파악과 함께 가족 및 개인의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의 시각이 확산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Humbolt가 제안한 Bildung 개념에서 언급하는 비판적 자세와 비판 능력, 논증적 자세와 논증 능력, 공감 능력, 통합적 사고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현상에 대한 가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포함된 가족학의 과정은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과학 분야는 인간에 대하여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되어 왔다(손승남, 2022). 그러므로 교양교육 과목으로의 가족학에서는 일상생활 속 현상을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인격 도야의 역량 습득, 정확한 자료를 통한 논증적 능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추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교양교육과 가족학의 연결점을 바탕으로 가족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가족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이론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현대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비혼,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둘러싼 가설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양교육으로서 가족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가족학의 구성

교양교육으로서 가족학을 살펴볼 때에 가족학 내에서 핵심적으로 언급을 하는 기본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이론적 접근에 대한 이해는 필수가 될 수 있다. 각 학문에 대한 기본 개념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자신의 논증을 견고히 하는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학에서 언급하는 핵심 개념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교양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가족의 개념

우선 가족의 구조를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족 구조 또한 변화해 왔으며, 이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와 18세기의 가족은 부계 직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혈통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남동생 등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가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가족의 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가부장적 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형태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전환되었다. 산업화의 도래와 함께 다세대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확대 가족 사회에서 가족의 수는 부부와 그 자녀의 2세대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으로 축소되고 부부 중심의 가족을 이룬다. 이전까지는 가문과 혈통의 대를 잇기 위한 가족 중심의 중매결혼이 보편화되었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을 통한 연애결혼이 이루어졌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된다. 그 결과, 이전에 "가족"에 대하여 규정된 '혼인을 통하여,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정의로는 모든 가족을 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에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재구성되고,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이 가지고 있거나 가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가족의 정의: 가족 구조(structure) VS 가족 과정(process)

전통적인 가족에서는 '가족은 이래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매우 강했다.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가족은 피(혈액)를 공유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가족에 대한 정의는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 구성된 집단'을 가족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가족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에 대한 정의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어떠한 가족은 정의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가족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대의 가족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일부 가족학자들은 가족에 대한 획일적인 정의에서 벗어나 비정규적으로 가족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여기에는 다양한 가족의 수용이 포함된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현대 사회에는 가족을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intimacy)'이라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가족의 구조(structure)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이제는 정서적 측면을 바탕으로 가족을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도 혈연관계가 아닌, 함께 살아가며 서로 돕는 집단의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이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는 과정(process)을 통하여 가족이 발달해 나아간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가족의 정의는 가족의 구조 및 관계 양상에 대한 다양성이 강조됨에 따라 점차 그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남녀로 이루어진 성인 2명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정의에서 '둘 이상의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집단, 공동체, 반려동물 등과 같은 정서적 교류를 포함하는 집단'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족의 정의는 사회·경제·정치·문화·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사회를 서구 사회와 동양 사회로 나누곤 하는데, 같은 동양 사회 안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인도는 모두 다

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규범도 다르다. 또한 같은 한국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가족의 정의가 달라질 것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가족의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가족 내에서 아내와 남편의 경험,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험, 딸과 아들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의 경험과 주변 친구들, 그리고 미디어 및 사회를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다양성 수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2) 역할(role)

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의 정의와 더불어 가족학에서는 개인의 ‘역할’과 ‘갈등’,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 관계 내에서의 역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집단 속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된다. 한 개인이 차지한 지위에는 ‘역할’이 부여되고, 개인은 이 역할에 부여된 기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는 가족 내 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고정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기대에 따라 사람들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수행하며, 이러한 행동이 역할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는데, 이처럼 사회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요구하는 행동 유형을 역할이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개인의 성격 및 인성, 그리고 사회문화를 통해 학습된다. 즉 역할이란, 개인이 차지한 지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어지는 행동 기준이나 문화적 행동 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획득 지위(achieved position)와 고유 지위(ascribed position)라는 것으로 구분지어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예컨대 파트너를 형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지위는 획득 지위이며, 자녀 출생과 더불어 지니게 되는 어머니 혹은 아들 또는 딸로서의 지위는 고유 지위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역할 행동은 역할 기대, 역할 인지, 역할 수행, 역할 평가, 역할 고정의 과정을 거쳐 취득된다. 역할 기대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주로 타인과의 상호접촉을 통해서 모방에 의해 학습된다. 이러한 역할 기대를 바탕으로 나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각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 역할 인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역할에 대한 기대나 인식이 항상 일치하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역할 기대와 일치하였는지 불일치하였는지를 역할 평가의 단계를 통해 따져 보게 되며, 이는 개인적의 역할에 대한 충족감과 연결된다. 역할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역할 고정은 역할 평가를 통해 만족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역할 행동 유형을 자신의 역할로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렇듯 상대방의 기대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역할 행동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역할 취득이라 하며, 가족 내 다양한 역할을 취득함에 있어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단계들에서 서로 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일치되는 각 단계를 재검토하여 조정해 가는 피드백을 거치게 된다.

(3) 갈등(conflict)

역할 취득의 과정에서 각 단계가 불일치되어 나타나는 역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개인이 인식하는 역할 구조와의 상이성에 의하여 역할 행동에 대한 기대, 인지, 수행 등의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역할 기대와 인지, 역할

기대와 수행, 역할 인지와 수행 간에 서로 일치되지 못할 때 역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의 역할에 대한 기대들이 불일치되어 나타나는 역할 내적 갈등(intra-role conflict)이 있다. 즉, 어떤 한 개인의 역할에 대해 주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다. 또한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역할 간의 갈등(inter-role conflict)이 있다. 가족 내에서도 한 개인은 여러 지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 아들, 친구 등의 서로 다른 역할이 요구된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서로 상반되는 역할이 기대될 때 역할 갈등이 수반된다. 이러한 예로 현대 커플 내 가사 분담에 대한 역할 갈등을 살펴볼 수 있다.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일-가족 양립 혹은 역할 분업에 대한 젠더화와 같은 이슈는 규범화된 역할 기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기대 및 수행과 개인 내 다중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 사회의 현황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눈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4) 권력(power)

가족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 중 하나는 ‘권력’을 살펴볼 수 있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적 권력과 사회적 권력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권력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권력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원은 경제적 자원과 비경제적 자원으로 구분된다. 경제적 자원은 화폐, 자산 등 물질적 자원을 의미하며, 비경제적 자원은 규범적 자원, 감정적 자원, 개인적 자원, 인지적 자원으로 나누어진다. 규범적 자원은 문화적 정의에 의한 자원으로 특정 지위에 따라 가질 수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인식을 의미하며, 감정적 자원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존의 특성을, 개인적 자원이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재능이나 전문적인 특성을, 인지적 자원이란 주고받는 영향력의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종종 가족 내에서 자원의 차이로 인하여 권력이 달라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권력의 요인이 되는 자원, 상호작용 기술, 결정권 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가족 혹은 사회 내에서 어떤 요인들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어떤 관계에서 그런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족 이슈들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의 특징

가족은 사회적 집단이다. 한 사람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1인가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가족이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러한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가족만이 아닐지라도 그 중 하나인 가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족은 일차적 집단(primary group)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차적 집단은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이며, 그 안에서 개성(personality)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각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져 이들 사이에 '우리'라는 감정이 일어나며 강한 일체감을 유지한다. 가족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주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차적(secondary)

집단은 간접적으로 접하는 관계를 말하며 사회, 노동조합, 국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차적 집단은 비교적 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화되어 있다. 일차적 집단인 가족은 이차적 집단과 상호작용을 맺으며 생활해 간다.

두 번째로 가족은 공동 사회 집단(gemeinschaft)이다. 공동 사회 집단은 커뮤니티 또는 희생 사회라고도 한다. 이 집단은 외부 장애물이나 분리에 의해 결코 분리되지 않는 고유한 유대감을 가지며 상호 애정과 이해로 결합된다. 즉,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세 번째로 가족은 폐쇄 집단이다. 폐쇄 집단이란 그 집단의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포기하기 어려운 집단을 의미한다. 즉,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려고 해도 혈연이라면 가족관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개 집단이므로 가족 구성원의 자유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자격을 마음대로 취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네 번째로 가족은 형식적 집단이지만 가족 관계는 비공식적이다. 형식적 집단은 행동이 객관적인 조직과 특정한 습관적 절차 체계에 의해 통제되는 집단이다. 즉, 집단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해당 지위에 대한 역할 행동이 필요하다. 혼인 관계는 혼인의 법적 절차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가족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사회보다 자유롭고 정직하며 순수하며 속박되지 않는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집단이다.

(1) 가족 가치

이러한 가족의 특징은 가족의 가치와도 연결이 된다. 가족 가치는 가족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 감각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가족 가치관은 효도와 조상숭배 이념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교의 전통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전통적/유교적 가족 내에서는 자녀의 결혼 문제를 가족 중심으로, 파트너 선택도 부모가 고려해왔다. 따라서 가족 가치관은 결혼, 가족, 자녀교육, 효, 형제자매와 관련된 사항들과 모두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전통적 가족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는 부모를 섬기는 자식을 중심으로 한 효 사상으로 대표된다. 효는 한국인의 삶의 원칙이자 모든 인간관계보다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로 간주되어 왔다. 자녀는 부모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며,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부양의 의무가 부여되었다. 효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공경, 지지, 보살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효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므로 제사 등을 양식을 통하여 살아 계신 부모를 섬기듯 예의를 갖추어왔다.

두 번째는 가부장제(Patriarchy)이다. 가부장제 제도는 사회 제도와 문화적 메커니즘을 통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17세기와 18세기 조선은 역사적으로 대외적 침략 등 대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봉건질서의 혼돈을 내부적으로 안정시키는 시기였다. 이에 여성에 대한 지배, 억압, 불평등의 확고한 질서에 입각한 기존의 지위제도와 정치경제적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하여 가족주의로 미화되면서 보편적인 이념으로 내재화되었다.

세 번째는 집의 개념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집'은 과거의 조상에서 미래의 후손으로 이어

지는 영구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조상의 유산을 어떻게 유지 및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족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 이는 제사 개념의 계승, 가문의 재산(가계 재산)의 유지와 확장, 그리고 이를 상속할 아들의 탄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집의 존재는 조상에서 후손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자식 관계의 무한한 연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 결과 아들에 대한 우대 의식이 형성되었고 부부 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선시 되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서구의 가족 원리는 한국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 가족 가치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서구 세계와의 접촉을 통한 한국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측면의 근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 근대 경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어난 의식의 근대화이다. 전자는 한국이 자급 농업 사회에서 근대 산업국가로 변모함에 따라 가족 집단이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변화이다. 한편, 후자는 성 평등과 개인주의에 대한 서구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매스컴과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일어난 가족 가치의 변화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은 전통 사회에 비해 눈에 띄게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에는 여전히 전통적 요소가 존재하며 서구적 가족 원칙과 공존하고 있다. 이 둘은 때론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론 큰 갈등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컨대 가사 노동을 바탕으로 한 젠더 불평등 현상에 대해 전통적 가족 가치와 현대적 가족 가치의 대립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사회 현상에 대해 가족 개념을 대입하여 이해하는 과정은 현 사회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변화 과정의 이해와 현재 갈등 상황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학 이론의 접근

가족을 둘러싼 사회 현상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었다³⁾. 이들 이론 중 몇몇은 가족 이론의 역사 상 초기 단계에 적합한 이론들이 존재하기도 하며, 현대와의 접점을 바탕으로 비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변형되어 발전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는 과정은 이후 사회 현상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론의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자신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고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 구조 기능주의 이론

현대 사회의 젠더 불평등과 관련하여 비평을 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가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다. 가족에 대한 Talcott Parsons(1902-1979)의 주요 작업은 가족에 관한 Parsons & Bales(1955)의 에세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Parsons가 제안한 가족의 기본 기능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자녀가 자신이 태어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차적인 사회화이며, 두 번째는 사회를 구성하는 성인의 인격 안정화이다(Parsons & Bales, 1955: 16-17). Parsons의 견해는 사회가 기대되는 역할 구조로 제도화, 조직되고 성인이 그러한 역할 구조로부터 안정을 얻을 때에만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Parsons(1954)는 이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미국 가족의 확장된 친족 관계의 침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이 두 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장소임을 강조하였다. 구조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핵

3) 가족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White et al.(2019)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가족을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기본 단위로 본다. 즉, 핵가족 제도가 산업화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가족 형태라고 주장했다. 핵가족에서 아버지는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을 하고, 어머니는 그것을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기능적 역할로 보았다. 이처럼 구조 기능주의 이론은 결혼과 가족이 사회와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어떻게 기능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결혼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해왔고, 사회가 가장 잘 기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젠더에 따른 분업과 사회 질서의 유지를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갈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사회통합과 안정을 우선시 하는 구조 기능주의 이론은 현재의 가족 질서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규범적 가족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을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2) 사회 교환 이론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결혼을 지속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파트너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보상과 잠재적 파트너에게 줄 수 있는 혜택 또는 보상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곤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감정 없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선택을 결정했다면 사회 교환 이론을 바탕으로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교환과 합리적인 선택은 공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공리주의의 본질은 개인이 행동 선택과 관련된 보상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저울질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보상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공리주의적 사고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이론은 개인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사회과학자로서 우리가 개인의 이익이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익을 통해 개인은 비용과 보상을 모두 고려하고 행위자의 효용이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은 수용, 지지, 동료애 등이 포함되며,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관계의 요소라 할 수 있다. 반면, 비용을 개념화하는 간단한 방법은 보상의 역수이다. 비용을 보상의 부정적인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은 시간, 돈, 노력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선택과 관련하여 놓쳤거나 놓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기회를 비용 또는 부정적인 보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의 기본 개념에는 쾌락, 만족, 만족을 가져다주는 사물이나 관계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보상과 비용의 개념만으로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려고 하면 결과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한 많은 요소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비교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의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그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CL)이다. 두 번째 비교(CL+)는 나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지만 대안이나 선택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출산 시기나 이혼 결정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남편은 결혼에 대한 자신의 이익 비율을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CL). 두 번째 비교 수준(CL+)은 남편으로서 그의 이익을 이혼 및 재혼 남편과 같은 다른 가능한 미혼 지위에서 인식하는 이익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다른 지위에 대한 더 큰 이익을 계산한다면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비교 수

준은 이혼과 같은 선택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와 연관시키는 만족 또는 만족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3) 가족 체계 이론

다음으로는 가족 체계 이론을 살펴볼 수가 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체계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 체계 내에서 상호 연결성에 대한 가정이 나타난다. Burr, Leigh, Day와 Constantine(1979)은 “체계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체계의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p. 98). 다시 말해, 가족 체계 내 한 부분이 변화하면 전체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는 부부를 바탕으로 한 부부 체계, 부모와 자녀 간의 부모-자녀 체계, 형제자매 간의 형제자매 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체계가 존재하는 가족 내에서 이 이론은 가족을 각각 개개인이 아닌 전체로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가족 내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는 일대일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더불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가족 내에서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는 응집력과 적응력이라는 두 차원에서 각각의 정도가 어떠한지, 즉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 다양한 가족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Olson, Sprenkle과 Russell(1979)은 응집력 차원은 평가 당시 가족이 보여준 물리적, 정서적 친밀감으로 가족들이 얼마나 잘 뭉치는가를 측정한 것이며, 적응력 차원은 가족이 다양한 역할과 변화하는 가족 규범에 적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균형 잡힌 수준의 응집력과 적응력은 건강한 가족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응집력과 적응력의 불균형 수준(매우 강거나 매우 약함)은 문제가 있는 가족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는 가족 내 체계 간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현재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간의 과도한 밀착에 대해 응집력과 적응력의 수준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4)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개발하고 구축하는 상징적 의미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세계 의미에 대한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는 Max Weber의 주장에 기원하여, 미국 철학자 George Herbert Mead가 1920년대에 미국 사회학에 도입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행위자(actor)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의 행동이 행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상징(symbol)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구성한다. 또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행동이 행위자에게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각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 사람들 혹은 사회에서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자의 맥락과 그 상황에서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사회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5) 가족 발달 이론

가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해 간다는 사회적 과정과의 연결성을 설명하는 것이 가족 발달 이론이다. 가족 발달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우선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발달 과업(developmental task)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가족 구성원은 계속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들의 역할, 기대, 구조 및 관계가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발달 과업이란 각 발달 단계별로 개인에게 혹은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제를 의미한다. 예컨대 성인이 자녀가 있는 가족의 발달 단계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 독립이 이루어지며, 각각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미시적으로 결혼 단위는 분석 단위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 혹은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형제자매와 같은 종속 단위일 수도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의 단위는 상위 체계인 가족에 대한 특정 가족 관련 법률이나 정책의 영향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법 제도, 정책, 문화적 규범이 가족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이 속한 사회 계층이나 종교도 동시에 가족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족은 달력의 시간 개념이 아닌 가족 행사를 기반으로 가족 경험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1997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족 구성원은 "막내가 태어났을 때" 또는 "아버지가 실직한 후"와 같은 이벤트를 사용하곤 한다. 가장 강력한 가족 발달 이론 중 하나는 사회학자 Evelyn Duvall이 개발한 "가족 생애 주기"이다.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결혼, 첫 아이 출산, 자녀 청소년기, 은퇴와 같은 정상적인 삶의 경험을 완료한 평균 연령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발달 과업이란 결혼 후 다양한 단계와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이 성취해야 할 일을 의미한다. 하지만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고정화된 발달 과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 비정상적이라는 낙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6) 생애 과정 이론

가족 발달 이론과 생애 과정 이론은 모두 개인의 유전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과 관련이 있다. 생애 과정 이론에서는 개인이 발달해 감에 따라 시간과 시간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가족 변화는 사회적 영향과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별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가족의 구조 및 가족 역할에 대한 기대를 구성하는 규범이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개인은 나이를 먹고, 관계에는 지속 기간이 있으며, 가족 단계를 거치며 가족 구조가 바뀐다. 가족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변화하는 역할과 기대는 가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 집단은 사회 계급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여 모든 분석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아동 훈육 기술에 대한 규범은 사회 계층 및 사회 내 성 문화와 관련이 있다. 또한 생애 과정 이론에서는 동시대에서 동일한 경험을 한 코호트(cohort) 개념을 통하여 시대적 배경, 연령 효과 등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 격차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이론들은 가족뿐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현상을 분석할 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스스로의 논쟁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근대 사회 이후의 가족 구성 원리

가족학의 기초 개념들이 어떻게 가족 관련 사회 이슈와 연관이 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대 사회의 구성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적 영역 VS 사적 영역

산업화 이전 농경업이 활발했던 시기에 가족은 생산적 노동을 하는 곳과 재생산을 하는 영역에 있어 커다란 구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심 산업이 농업이었던 전근대에서는 "유상 노동"을 행하는 장소인 "생산 영역"과 가족이 생활을 하는 장소인 "재생산 영역"의 구분이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 근대 사회와 같이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근대 이후의 가족은 주로 사람의 생산을 행하는 "사적 영역"으로 위치 잡게 되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행하는 시장에서는 돈(money)을 매개체로 하여 사고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된다. 반면 가족이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는 일한 가치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유상 노동을 시장에서 행하는 현역의 노동자를 지지하고 미래의 노동자인 자녀를 무상으로 양육하는 것이 요구되어 왔다.

근대 사회가 되어 변화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 분리뿐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 각 영역을 질서 짓게 하는 원리나 이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게 하는 가치관도 상이해졌다는 점이다. 즉, 남성에게 부담 짓게 하는 공적 영역에서는 합리성이나 능력주의, 계획대로 수행되는 예측가능성 등이 중시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다음 날에도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 시 되는 다양한 가사, 미래의 노동자가 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출산/양육, 상처나 병에 걸려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나 간병, 고령자의 돌봄과 같은 것을 가정에서 부담하는 여성은 합리성이나 능력주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근대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비합리성, 종속주의, 예측 불가능성과 같은 원리에 놓이게 된다. 이를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수 없는 무상노동을 "Shadow work"로 부르며, 그 불가시성이 현대 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다(Illich, 1981).

공간 분리에 더하여 각 영역을 근본적으로 질서 짓게 하는 원리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관도 크게 상이해지는 상황에서 각 영역을 분담하는 사람도 성별에 의해 구별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시장과 가정은 구분된 개별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연구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Sokoloff, 1980), 실질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변증법적 관계라는 용어로 표현되곤 한다. 무상으로 노동자를 제공하는 가정이 없으면 시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가정도 경제 자원을 시장으로부터 획득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젠더화(gendered)된 사회

이처럼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기대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왔다. 근대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젠더에 따라 상이함과 더불어 가족 경험도 젠더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에 가족에 대해 고려할 때 젠더 관점은 불가피해진다.

남성은 공적 영역의 노동(유상노동)을, 여성은 사적 영역의 노동(가사나 양육, 돌봄 등의 무상노동)을 주로 책임지게 되는 것을 전제로 분업 체제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성별 역할 분업"이라 한다(Parsons & Bales, 1955). 현재 서구를 중심으로 성별 역할 분업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유교문화와 가부장제가 존재했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곳에서는 아직까지 성별 역할 분업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에 젠더 관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더 나아가 소위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에게 미소 등을 강요하는 감정 노동을 집 안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도 부과되도록 만들었다. 미국 사회학자 Hochschild(2012)에 의하면, 비행기 내 객실 승무원이 고객의 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정을 통제하도록 요구당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노동은 현대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일이라 지칭되는 주로 서비스 업종인 'pink sector'에서 나타나게 된다. 서비스 경제화가 증진됨에 따라 육체노동에서 지식 노동이나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며, 여성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였지만 남성에는 지식 노동이, 여성에는 감정 노동이 부여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가정 내 파트너나 자녀에 대한 세심한 배려, 공감, 감정 표현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긍정적 감정 관리는 남성 보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에는 가사 노동이나 양육, 돌봄과 같은 육체노동에 더하여 적절한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성스러움이나 어머니 역할 등이 요구되었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젠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현 사회의 이슈와 변화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4. 가족과 관련된 사회 현상

근대 사회에서 산업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족을 시작으로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산업화라는 사회의 영향으로 가족 내에서는 가족의 형태 및 구조가 변화하게 되며, 이는 다시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저출산 및 비혼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1) 핵가족화

현대 사회는 비혼 및 만혼화 현상이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세대 구성에 있어서도 1인가구가 대표적 가구 유형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형성된 확대 가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인 "핵가족(nuclear family)"이 보편적 가족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류학자 Murdock(1949)은 1940년대 미국에서 집계된 인류학적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가족이란 전형적으로 1) 거주를 같이 하며, 2)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의 3가지 유형의 관계성을 가지며, 3)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성, 경제, 생식, 교육의 4가지 기능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핵가족 보편설"로 언급된다.

한편 사회의 근대화로 인하여 가족이 규범 등 사회적 압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제도적인 가족에서 구성원 간의 애정 및 정서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우애적인 가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생식과 양육의 기능과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과 문화의 기능이 가족에게 남겨진 것이라는 주장이 "가족 기능 축소설"이다(Burgess & Locke, 1945).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근대화가 되면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통적 대가족인 확대가족에서 가족 구성원과 세대 수가 줄어드는 핵가족이 되며 "고립화" 되어 간다는 주장이 있다. 가족의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족 내 보편적인 기능들이 있다는 전제로, 가족에 남아 있는 주요한 기능은 '성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녀의 사회화' 두 가지 기능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상정을 하고 있다(Parsons & Bales, 1955).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을 때, 핵가족은 고립화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으로서 최

소한의 중요한 형태를 띠며 사회의 기초 단위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의 한편으로는 핵가족이 아닌 가족에 대해서는 그 형태적 측면에서 일시적이거나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 이미지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대 사회에서도 과연 이와 같은 가설들이 부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근대 가족론"을 살펴볼 수 있다. 근대 가족론은 산업화나 사회의 세속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되었다고 가정한다. 근대 가족으로서 상정되는 것은 1) 핵가족의 형태를 띠며, 2) 가족 내에서 정서적 연결이 강한 것, 3) 부부가 성별 역할 분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핵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보편설에서와 같이 부모와 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2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족 형태는 현대의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을 고려할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 함께 손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3세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3세대 동거 형태의 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핵가족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결혼에서 벗어나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결혼의 형태가 증가하며 축소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연결을 중시하게 된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평생에 걸쳐 서로 함께하는 부부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로맨틱 사랑 이데올로기(romantic love ideology)"가 나타난다. 즉, 남성과 여성이 평생 사랑을 하여 그 관계 안에서 결혼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져 그 결과로서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다(Shorter 1975).

이는 부부 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연결과 함께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연결 또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녀는 부부 간 사랑의 결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연결 또한 더욱 강해진다. 가족은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듬뿍 주어 양육하는 장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는 무조건적 사랑(unconditional love)의 대상이 되며, 특히나 영아기의 절대적 보호 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탄생하게 된다(Ariès, 1965).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모로 인하여 구성된 것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인 모성애라는 주장 또한 가족의 보편성과 사회 및 가족의 구조, 역사적 변화와 함께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난다(Badinter, 1982).

커플 내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해서는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화와 산업화 과정에 의하여 구성된 분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근대 가족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맨틱 사랑 이데올로기는 이 분업 체제에 의한 권력 구조를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그 당위성을 부여한다(Giddens, 1995). 로맨틱 사랑 이데올로기에서는 남녀가 서로 선택하고 선택 받는 관계를 구축하여 가족 관계에서는 애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 애정이라는 것이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기에 가족 관계는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근대 가족론은 이성애 중심의 부부와 그 자녀와의 관계, 커플 내 성별 역할 분업 등이 사회적 변화를 통한 일시적 형태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들을 현재 젠더 불평등으로 젠더 간 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iddens(1993)에 의하여 만들어진 로맨틱 사랑 이데올로기는 가족 구성에 있어 이전의 제도적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 관계 형성 개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혼인 관계 내의 출산, 즉 결혼한 커플 내 이루어지는 재생산만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 규범이 양성된다. 이와 같은 규범의 존재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도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로맨틱 사랑 이데올로기가 만연하며 출산율이 저조한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실질적으로 성관계는 이루어지더라도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 들어가는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은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혼 연령과 첫 자녀 출산 연령의 증가가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인구 통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만혼화와 만산화가 일체화됨을 언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혼화 현상으로 인하여 저출산은 보다 심각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비혼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0%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견이 강조되는 비혼화 현상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혼인 외 자녀 출산에 대한 제도적 혹은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출산은 혼인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혼 현상의 증가 추이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저하하게 만든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 감소를 야기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사회 보장비의 증대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억제한다. 또한 생애 비혼율의 상승은 독거노인의 증가와 연결되어 생활 불안정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구조 및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 자발적 비혼 VS 비자발적 비혼

비혼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는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자발적 비혼은 또 다시 두 가지 가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자발적 비혼과 관련된 가설을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필요 없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증가와 함께 주로 청년층에서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여성의 고학력화나 취업 기회의 증가에 의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아도 파트너십이나 성관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이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청년층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즉, 사회적 장애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비혼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자발적 비혼" 가설이다. 이는 삼포세대를 시작을 N포세대론까지 이어진 청년층의 결혼, 출산, 연애에 대한 포기설과 일맥상통한다. 비자발적 비혼 가설에서는 사회적 장애를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결혼 상대를 만날 기회가 줄었다는 점에 주목한 가설로 "공동체에 의한 파트너 선택 지원 약화" 가설이 있다(Kato, 2011). 남녀 공학, 여성의 사회 진출 등에 의하여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확연히 증가하였다. 다만 지인이나 동료로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연인 관계 혹은 결혼까지 진행되는 기회는 역으로 줄었다고 보고된다. 그 이유에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의 보편화로 인하여 결혼은 가족이나 사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써 고려되기 시작하였기에, 친족이나 지역사회, 직장 등 주변 공동체에 의한 파트너 선택 지원 (예컨대 소개팅, 맞선 등)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가설이다. 이는 경제 성장의 정체로 인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기에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가설이다(Kato, 2011). 다만 한국과 같이 성별 분업이 잔존하는 사회에서는 남성의 비혼화는 이러한 가설로 잘 설명될 수

있으나, 여성의 비혼화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성별 분업 하에서는 남성에는 생계 부양자 역할이 기대되기에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결혼 상대자로서 그 가치가 저하되기에 결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수입이 줄어들어도 결혼 상대로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한 가지 현상에 대한 가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그 논리를 이론적 근거 및 실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가설들에 있어 과연 실제의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어떠한 가설들이 지지되는가.

(2) 가설의 과학적 검증

"자발적 비혼" 가설에 대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결혼 의욕은 과연 저하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만 20~4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50.8%의 미혼자들은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인 2015년 63.4%에서 다소 감소는 하였지만 그 감소 폭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서 외, 2021). 또한 2019년 만 19~49세의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9%의 응답자는 '결혼에 대하여 이점이 많은 편'이라 응답하였다(김은정 외, 2019). 이 결과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1.5%가 '결혼의 이점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결혼의 이점이 많다'고 응답한 여성의 경우는 59.9%였다. 이처럼 과반 수 이상의 사람들이 결혼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이점 또한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발적 비혼" 가설만으로는 비혼과 만혼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자발 비혼"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비자발적 비혼을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로 파트너 선택 자체가 개인의 선택이라는 개인화 개념이 중시됨에 따라 친족 및 친구 등 타인에 의한 선이나 소개팅 등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공동체에 의한 파트너 선택 지원 약화' 가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to(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매 및 소개팅으로 인한 결혼이 많은 해에는 청년층의 결혼 비율이 상승한 반면, 중매 및 소개팅으로 인한 결혼이 적은 해에는 청년층의 혼인율이 저하한다는 결과가 보고된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초혼율 저하를 커플 간 만남의 유형에 따라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혼의 저하 원인으로 약 50%를 중매결혼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약 40%는 사내 및 직장과 관련된 파트너와의 결혼 감소로 인하여 전체 혼인율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Iwazawa & Mita, 2005). 이와 같은 연구들을 고려할 때, 공동체에 의한 파트너 선택 지원이 약화됨에 따라 비혼화가 진행되었다는 가설은 데이터를 고려한 바에 따르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자발적 비혼설"의 두 번째 가설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인 청년들이 결혼하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소, 2022). 더불어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청년층의 결혼 확률이 낮아지는 것 또한 보고된다(Kato, 2011). 더욱이 직업에 있어서의 업종에 따라서도 결혼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에서는 대기업 종사자에 비하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비정규직 종사자의 결혼 확률이 낮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도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여성에 비하여 결혼 확률이 낮다(한국경제연구소,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가설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가설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의문점을 가져볼 수도 있다. 성별 역할 분업이 만연한 사회임을 고려할 때, 남성은 주된 경제적 부양자 역할이 기대되어 왔기

에 고용이 불안정하면 결혼 상대로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주된 경제적 부양자 역할이 기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서는 비정규직 종사 여성의 경우 결혼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녀의 '교제권'에 주목한 가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규직 남성과의 결혼을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여성은 자신과 같은 비정규직 남성과 만날 기회는 많은 반면 정규직 남성과 만날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도 결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Taromaru, 2011). 청년층의 파트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직장이나 지인을 통한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여성의 직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많은 반면 정규직의 비율이 낮다. 이는 비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 남성과 만날 기회는 많은 반면, 정규직 남성과 만날 기회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제권의 차이는 파트너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고용 불안정에 의하여 결혼할 확률은 저하하지만, 성별 역할 분업이 현존한다는 가정에서는 저하의 경로는 남녀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남성은 경제적 부양자 역할이 기대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남성은 직접적으로 결혼 할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주 경제적 부양자 역할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직접적인 결혼 확률의 저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직일 경우 정규직 남성과의 만남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 간접적 영향으로 인하여 결혼 확률이 저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분석하는데 있어 현존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실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논증법을 개발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강의 내 교수자에 의한 논문 및 데이터 분석 방법의 해석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현 사회 현상과 관련된 논문들을 수강생들 스스로가 찾아봄으로써 이들을 함께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발적 학습 능력은 물론,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용 및 포용도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성인 자녀 - 부모 간 관계

비혼화와 만혼화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현실적으로 혼외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규범의식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교 사상을 가진 국가에서 주로 관측된다. 이러한 규범의식은 사회 전체의 저출산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로맨틱 사랑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의 결실로 간주되는 출산한 자녀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발달 이론 및 생애 과정 이론에서 강조하는 발달 과업을 고려할 때, 청년기 이후의 성인 자녀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거리두기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요구된다.

(1) Parasite Singles / 켄거루족

만혼화와 혼인 전까지 자녀의 독립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의 문화적 규범을 고려할 때, 비혼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동거 양상을 주요 가족 유형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다. 비혼 성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촉진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부모

의 경제력이 높을 때 동거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 때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편이 비혼 자녀가 보다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부모와 비혼 자녀 간 동거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Yamada, 1999). 이는 이후 비혼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켄거루족 혹은 parasite singles를 양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때 비혼 성인 자녀와 부모의 동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근무지와 집까지의 거리에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비혼 자녀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 고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출퇴근이 편한 대도시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생활비에 주목할 때, 대도시에서는 생활비 등이 비싸기에 부모와 동거할 필요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분석 또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의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성장한 자녀가 부모에게 기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경제나 돌봄 측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일본의 부모 자녀 관계는 고용이나 소득 보장이 중년층 및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견고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빈약한 제도의 영향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Yamada, 1999). 한편 한국에서도 경제 및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며 '켄거루족'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의 parasite singles와 유사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 양상은 성인으로서 자립할 시기인 청년층에게 의존 성향을 고조시키며, 새로운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

(2) 상호 의존 부모 - 자녀 관계

한국에서의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상호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성인 자녀에서 부모로, 그리고 부모에서 성인 자녀로 양방향 모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측면의 지원과 정서적 및 도구적 측면의 지원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는 '황혼육아'와 같은 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 즉, 부모 세대의 성인 자녀에 대한 손자녀 양육 지원과 이에 상응하는 성인 자녀 세대의 경제적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헬리콥터 부모 역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모 - 자녀 관계 유형 중 하나가 헬리콥터 부모 역할(helicopter parenting)이 될 수 있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녀의 생활 영역을 통제하며 누구를 만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자녀의 생활을 간섭하는 부모를 의미한다. 헬리콥터 부모 역할이 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한다. 자녀 수 감소에 의한 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몰입이라는 가설, 신자유주의 하에 성장한 현대 청년층은 경쟁 사회 하에서 스펙 형성만이 강조됨에 따라 다른 생활 및 결정에 있어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화 되었다는 가설 등이 있다. 또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에 대한 해석은 중국과 한국과 같은 동양권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간섭을 성공으로 가는 지금길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하여 학업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Hwang & Jung, 2021)가 보고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서구권에서는 과도한 간섭 및 통제라는 부정적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며 청년층의 자율성 및 자발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Jung et al., 2020)고 보고된다. 이와 같이 이들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들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문화적 규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다. 이러한 다양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 양상은 현대 사회의 청년층이 접한 이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관계가 현 사회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사회의 영향으로 어떻게 부모 - 자녀 관계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현재 청년층의 삶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후 청년들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근대 사회 이후 Giddens(1992)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s)에 대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는 연인 관계 및 가족 관계 등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을 사람들은 형성하게 되며, 이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특히나 애정을 중심으로 한 감정을 자주 교환하는 것을 '친밀성(intimacy)'이라 하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그 공간을 바로 '친밀역'이라 칭하기도 한다. 특히나 근대 사회 이후의 가족은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며 그 안에서 정서적 친밀성이 고조되어 커플 내 성별 역할 분업이나 로맨틱 사랑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주요 역할을 사회적 규범 하에 구축해 왔다.

하지만 가족 내에는 친밀성과 함께 공동성이라는 것이 깊이 내재되어 있어, 가족은 친밀성을 담보로 공동성을 실현하는 제도라 할 수도 있다. 즉, 규범적 가족이라 불리는 근대 사회 이후 거론되는 핵가족을 바탕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다. 이는 정상 혹은 정당한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승인하게 하며 그 안에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사회에서 규정한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에 대해 이상한 혹은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혼 및 비연애와 같이 스스로를 고립화 하여 친밀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친밀권이 실종되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함께 한국의 비혼화, 만혼화, 저출산 등의 사회 현상을 고려할 때, 인구 통계를 통한 데이터 상에서는 개인화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친밀권의 실종에 대한 위기 의식은 '탈가족화'와 '위기 회피적 개인화'로 해석해 볼 수 있다(Chang, 2013). 탈가족화란 가족생활의 유효 범위나 기간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가족에 부담되는 것을 줄이자고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향을 의미한다. 한편 위기 회피적 개인화는 개인이 혼자 살아가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근대 생활에 있어 가족 관련 위기를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경향을 의미한다. 즉, 아시아권에 있어서 순수한 사랑이라는 애정 이외의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제도로서의 결혼이 존재함에 따라 친밀성에 대한 변화는 아시아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사회적 맥락과 경제적 위기와 함께 친밀성의 영역이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듯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이슈가 등장하며 이는 사회 주류의 이슈로 전체 사회를 위기로 빠뜨리기도 한다.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 과학적 가설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필요시 된다. 논증법적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할 때, 이는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과 같이 주류의 흐름에 자아가 흘러갈 위험이 있으며 집단 간 배척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현안에 대한 정확한 비평과 판단은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수가 되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 내 다양화 양상은 서로 다른 집단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

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회는 권력을 바탕으로 한 갈등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이슈가 등장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이들 현상을 공신력 있는 자료와 과학적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족학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족학이라는 학문이 사회학에서 파생됨에 따라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와의 교집합을 만들어 왔다. 이에 사회과학 분야와의 융합적 접근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수 방법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이론 및 강의가 아닌 수강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며 탐색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 토론 수업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자발적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표 및 그룹 프로젝트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은정, 강은나, 변수정, 이상정, 임정미, 장인수, 이주연(201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혜정, 송지은(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승남(2011).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교육과학사.
- 손승남(2022). 교양교육의 개혁과 전망. 학지사.
- 신득렬(2016). 교양교육. 겨리.
-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
- 한국경제연구원(2022).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 분석.
- Ariès, P. (1965).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Vintage.
- Badinter, E. (1982). *The myth of motherhood: An historical view of the maternal instinct*. Souvenir Press Ltd.
- Burgess, E. W., & Locke, H. J. (1945).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American Book.
- Burr, W. R., Leigh, G. K., Day, R. D., & Constantine, J.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J. L. Reis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pp. 42-112). New York: The Free Press.
- Chang, B. (2013).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Compressed modernity" and the ambiguous family crisis in East Asia. In E. Ochiai, *Reorganization of intimate and public spheres: Questions from modern Asia*. Kyoto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93).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 R. (2012).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wang, W., & Jung, E. (2021). Parenting practice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erceived academic control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8, 37-49. <https://doi.org/10.1007/s10804-020-09346-0>
- Illich, I. D. (1981). *Shadow work*. Marion Boyars.
- Iwazawa, M., & Mita, H. (2005). The rise and fall of job-related marriages and the progress of singles. *The Japan Institute of Labour*, 535, 16-28.
- Jung, E., Hwang, W., Kim, S., Sin, H., Zhao, Z., Zhang, Y., et al. (2020). Helicopter parenting, autonomy support, and student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2), 358-373. <https://doi.org/10.1007/s10826-019-01601-7>
- Kato, A. (2011). Two major factors behind the marriage decline in Japan: The deterioration in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diffusion of individualism ideolog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67(2), 3-39.
- Murdock, G. P. (1949). *Social structure*. Macmillan.

- Muriji, K., Neal, S., & Solomos, J. (2022). *An introduction to sociology*. Sage Publishing.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ess*, 18(1), 3-28.
<https://doi.org/10.1111/j.1545-5300.1979.00003.x>
- Parsons, T. (1954).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2nd ed.). Free Press.
- Parsons, T., &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Free Press.
- Shorter, E. (1975).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Basic Books.
- Sokoloff, N. J. (1980). *Between money and love: The dialectics of women's home and market work*. Praeger.
- Taromaru, H. (2011). Youth non-regular employment and marriage. In Y. Sato, & O. H. Ojima, *Modern hierarchical society 1: Disparities and diversity*. University of Tokyo Press.
- White, J. M., Martin, T. F., & Adamsons, K. (2019).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5th ed.). Sage Publishing.
- Yamada, M. (1999). *The age of parasite singles*. Chikuma Shinsho.

제7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발행일: 2023년 2월 2일

발행처: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발행인: 장수철

주 소: 21983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자유관A 601호

전 화: 032-749-3184, 3199

이메일: liberaledu@yonsei.ac.kr

홈페이지: <https://liberaledu.yonsei.ac.kr>

이 학술대회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됨
(NRF-2022S1A5C2A04093488)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비매품>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제7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주최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LIBER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후원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